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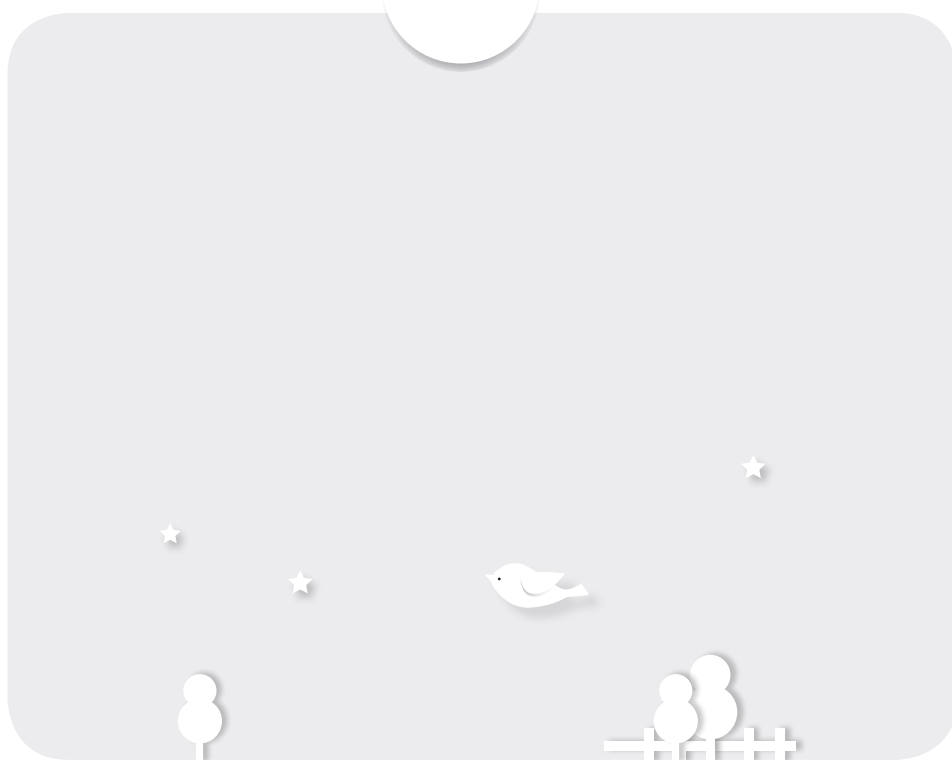


한글

# 정답과 해설

통합편

중등 국어 2





# 정답과 해설



## I 문학

### 1 시/시조

#### 차근차근 개념 이해

008~011쪽

- 1 ○ 2 말하는 이 3 태도 4 ○ 5 4 6 공감각적  
7 반어 8 × 9 역설 10 비판 11 ○ 12 재구성

#### 바로바로 개념 적용 고향 / 두꺼비 파리를 물고

012~013쪽

##### ◆ 고향

- **작품 설명:** 이 시는 타향에서 병을 앓게 된 화자가 의원을 찾아가다가 아버지로 섬기는 분과 그 의원이 막역지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서 위안이 되는 공간이다. 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고향은 식민 지배 이전의 공동체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정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 • 핵심 보기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타향에서 혼자 앓아누워 있음.	외로움, 힘들.
↓	
화자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와 의원이 친한 사이임을 알게 됨.	반가움.
↓	
의원이 말없이 웃으면서 진맥함.	따뜻함, 친근함.

##### ◆ 두꺼비 파리를 물고

- **작품 설명:** 이 사설시조는 힘없는 백성 앞에서는 군림하고 높은 권력자에게는 굽실거리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비굴함을 '두꺼비'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인간의 비굴한 모습을, 종장에서는 겉 많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인간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작품이다.

##### • 핵심 보기

백성굴	두꺼비	파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 관리	백성은 괴롭히고, 권력자에게는 비굴하게 구는 지방 관리	지배 계층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
← 비굴		→ 횡포

- 지문 체크 1 ○ 2 아무개 씨 3 × 4 ○ 5 ×  
6 모쳐라

말하는 이의 상황과 정서 1 ②

시조에 반영된 세태와 주제의 형상화 방식 2 ②

- 1 이 시의 화자가 의원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고향이나 가족을 따뜻함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떠나온 고향에 대해 상실감이나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이 시조에서 '두꺼비'를 희화화함으로써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굽실거리고, 자신보다 힘없는 백성에게는 온갖 방법으로 수탈하고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 통달도약 실력 쌓기 01 엄마 걱정

014~015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외롭고 고달팠던 때의 상황과 정서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어린 시절의 화자는 열무를 팔러 장에 간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홀로 빈방에서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고독과 소외감을 성인이 된 지금에도 간직하고 있다. 성인이 된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쓸쓸했던 기억을 차분한 어조로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배경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둡고 무거운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 핵심 보기

엄마의 고된 삶	'나'의 외롭고 서글픈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무 삼십 단을 이고</li> <li>• 배춧잎 같은 발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찬바람처럼 방에 담겨</li> <li>•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li> <li>•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li> </ul>
↓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화자는 유년 시절을 '내 유년의 윗목'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움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 1 ① 2 ② 3 ③ 4 ⑤ 5 내 유년의 윗목

- 1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가신 엄마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아, '나'는 혼자 빈방에서 엄마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열무를 팔고 있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1연에서 금 간 창틈으로 빗소리가 들리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렸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③ 2연에서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의 외롭고 서글팠던 기억을 회상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④ 1연에서 '나'는 빈방에서 혼자,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⑤ 1연에서 '나'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오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이 시는 어른인 화자가 장에 가신 엄마를 혼자 집에서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3 어른이 된 화자는 외롭고 쓸쓸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펐던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것은 맞지만 화자가 이를 잊어 버리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이 시에서 '나'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추억하고 있지는 않다.

④, ⑤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며, 어른이 된 현재의 삶이 고단하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4 이 시에서 빈방에 덩그러니 있는 '나'는 가슴 시리도록 외로움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으며(미나), 고요한 빗소리 때문에 그 외로움이 더 고조되고 있다(준우). 또한 '안 오시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슬픈 감정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제니).

**오답 풀이** 주원: 이 시는 과거(화자의 어린 시절의 시점)에서 현재(어른의 시점)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후: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를 시들시들한 '배춧잎'에 빗대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지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5 '윗목'은 불길에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화자는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이므로 화자와 시인은 일치하지 않는다.

② 화자의 울음이 매미 떼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미 떼를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현재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울고 있는 처지이지만,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도 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좌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울음'은 매미 떼 소리에 묻혀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 감동을 줄 수 없는 귀뚜라미의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귀뚜라미의 울음은 숨 막히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생존의 울음이다.

② 아직 노래가 되지 못한 귀뚜라미의 울음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발길에 눌러 우는 울음이다.

③, ⑤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여름날에 화자인 귀뚜라미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울음이며, 이는 곧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의미한다.

- 3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비록 지금은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지 못하지만, 맑은 가을이 와 자신의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힘든 처지이지만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 귀뚜라미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① '새로운 길을 가려고 도전하는 사람'은 현재의 처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귀뚜라미와 같은 모습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멀다.

- 4 귀뚜라미는 이 시의 화자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에 비겨 표현한, 의인화된 존재이다. 또한 3연의 마지막 행을 중심으로 볼 때, 귀뚜라미는 가을이 되어 자신의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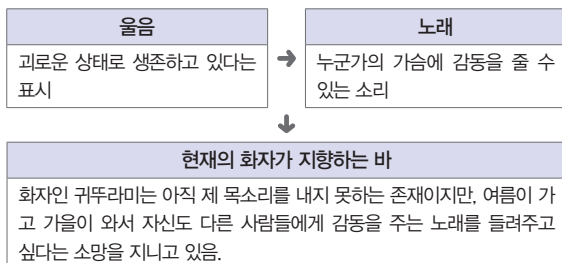
토닥토닥

## 실력 쌓기 02 귀뚜라미

016~017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화자가 귀뚜라미로, 화자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높은 가지 위에서 큰 소리를 내는 매미 떼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의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일 뿐이다. 이렇듯 화자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고통스럽게 존재하며 울고 있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 핵심 보기



- 1 ④    2 ④    3 ①    4 ㉠: 의인화, ㉡: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 1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이다. 귀뚜라미는 현재 매미 떼 소리에 묻혀 구슬픈 울음을 울고 있는 처지이지만, 가을이 되어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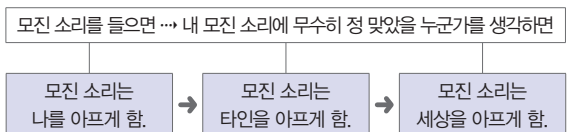
토닥토닥

## 실력 쌓기 03 모진 소리

018~019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모진 소리'가 나와 누군가, 나아가 세상까지 아프게 한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쌀쌀맞고 독한 모진 소리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어도, 또한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어도 온몸을 아프게 하며, 결국엔 세상까지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모진 소리에 상처를 받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 • 핵심 보기



- 1 ④    2 ②    3 ⑤    4 모진 소리로 인한 상처

- 1 '쿵쿵'과 같은 의태어나 '쨍'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모진 소리에 상처받는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 2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하는 소리로, 화자는 이것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나아가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한다.
- 3 이 시는 모진 소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함을 말하고 있고, 〈보기〉의 시는 좋은 말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의 공통점은 말이 지닌 영향력과 말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시는 밝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나, 이 시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라고 볼 수 없다.  
 ② 두 작품 모두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국국', '짹'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기〉의 시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4 제시된 시구는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독도약

실력 쌓기 04 먼 후일

020~021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떠나간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어를 활용하여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입이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을 '잊었노라'고 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는 입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자신을 달래는 말일 뿐이다.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인 '잊었노라'는 '잊었다'라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어와 문장 구조, 3음보가 반복되어 운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 핵심 보기

겉으로 드러난 표현	↔ 반대로 표현	속마음(진심)
'잊었노라'		결코 잊을 수 없다.
↓		
반어의 의미		
겉으로는 불특정한 미래에 '당신'을 다시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하여 표현하지만, 이를 통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낸다.		
↓		
반어의 효과		
•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접하게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함. •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1 ⑤    2 ④    3 ④    4 ②    5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 1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뿐, 입을 나무라지는 않는다. 떠난 입과 재회할 상황을 가정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입을 그리워한다.
- 2 대구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시구에서 흔히 나타나며, 대조되는 시어를 대구로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되고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이 시에 대조적 시어의 대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먼 훗날'과 '당신이'와 '찾으시면' / '그때에'와 '내 말이'와 '잊었노라'와 'V'와 같은 3음보의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 잊었노라' 등의 같은 시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⑤ '~면 ~ 잊었노라'의 가정형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3 이 시의 화자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입을 잊지 못하는 속마음을 '잊었노라'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의 속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고, 화자의 애틋한 마음과 그리움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 ④의 모순된 표현은 역설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4 이 시는 반어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어법을 활용한 말은 ②이다.
- 오답 풀이** ①은 도치, ③은 은유, ④는 역설, ⑤는 직유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5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는 표현에는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는 화자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다.

통독도약

실력 쌓기 05 년 바보다

022~023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화자가 좋아하는 아이를 관찰한 경험과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행동들을 나열하며 '바보'라고 한다. 하지만 2연에서 그러한 '너'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나'의 진심을 밝힘으로써 '바보'라는 말이 반어적인 표현이었음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1연 마지막 시구에서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2연에 드러날 극적 반전을 살리고 있다.

• 핵심 보기

겉으로 드러난 표현	↔ 반대로 표현	속마음(진심)
'너 참 바보다.'		'너'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이다.
↓		
'나'의 깨달음		
•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씬씀이에 감탄함. •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함.		
↓		
'나'의 표현 의도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하여 '너'의 바른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강조함.		

1 ①    2 ②    3 ①    4 너는 참 바보다.

- 1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착하고 바른 아이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2 '너'는 친구의 말이 허풍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 주는 착한 아이이다.

오답 풀이

- ①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에서 알 수 있다.  
 ③ '바보라고 불려도 화내지 않고 /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에서 알 수 있다.  
 ④ '개구멍으로 쑥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에서 알 수 있다.  
 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에서 알 수 있다.

- 3 이 시의 주된 표현 방법은 반어법으로, ①은 '고와서 서러워라.'에서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②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임이 떠나는 것이 슬프다는 마음을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는 기다림보다 사랑의 감정이 더 행복하겠지만, 사랑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배알이를 건디게 해 준 소중한 아랫목이 물에 잠길 정도로 다급하고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서럽지 않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4 '너는 참 바보다.'라는 시구는 '너'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표현이 반복됨으로써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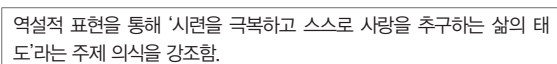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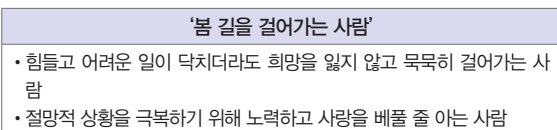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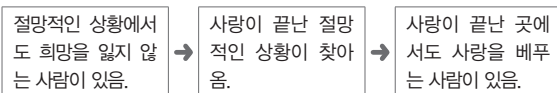
토의토의

실력 쌓기 06 봄 길

024~025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역설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길이' 끝났지만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났지만 '사랑'으로 남아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이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로 곳곳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의 제목이자 제재인 '봄 길'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과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길'이 조합된 것으로,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화자는 사랑이 소멸된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보라'와 같은 단정적 어조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함으로써 읽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1 ④    2 ②    3 ⑤    4 ③    5 ㄱ, ㄹ, ㅁ

- 1 강물이 멈추고, 새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통해 희망적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역설 표현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이 있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통일성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10행의 '보라'와 같이 명령형 어미의 사용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 '봄 길'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뜻하며, 이를 통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시에서 자연물은 극도의 절망이 닥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화자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3 ㉠에 사용된 표현은 역설이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면 읽는 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읽는 이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4 이 시는 상반된 이미지를 갖는 시구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는 절망적 상황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구이다.

오답 풀이

- ① '길이 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② '스스로 봄 길이 되어'는 것은 긍정적 가능성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갖는다는 뜻이다.  
 ④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사랑이 끝나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⑤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통만 남은 곳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뜻한다.

- 5 이 시는 역설적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진술을 통해 그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ㄱ에서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ㄹ에서 '찬란한'과 '슬픔'이, ㄴ에서 '님은 갔지만'과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바로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ㄴ. '오랑캐꽃'은 사람이 아닌 식물일 뿐인데 '울어나 보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다.

- ㄷ. 화자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너그로우면서도 포용력이 있는 존재인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처럼'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토요토요

실력 쌓기 07 독은 아름답다

026~027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를 활용하여, 각각이 지닌 부정적 특성에서 발견한 긍정적 가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날카롭게 찌르는 밤송이의 가시, 복어의 독 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특성이 '은행나무 열매', '밤톨', '복어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여기므로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밤톨', '복어알'은 마지막 연에 이르러 '자식'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습관처럼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그 독한 마음을 아름답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역설의 뜻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역설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린내가 향기롭다</li> <li>•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li> <li>•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li> <li>•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li> </ul>
표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순된 표현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함.</li> <li>•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진리를 담고 있어 그 의미를 강조함.</li> </ul>

1 ② 2 ② 3 ④ 4 차갑지만 따뜻한 손

- 이 시의 화자는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구린내, 밤톨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 복어알을 보호하기 위한 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 '밤톨', '복어알'은 4연에서 자연스럽게 '자식'과 연관된다. 즉 이 시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부모의 사랑, 본능적인 애정의 감정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 모순된 표현은 앞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밤송이가 따가워진다'에는 모순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구린내'는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인데 '향기롭다'고 표현하였다.

③ 술을 끊은 친구가 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독한 마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였다.

④ '복어의 독'은 건강이나 생명이 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였다.

⑤ '밤송이'의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만, 밤송이가 가시로 밤톨을 '너그럽게' 감싸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것을 보고 독하다고 했지만, 그 독한 마음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므로 '아름답다'고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역설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역설은 모순된 표현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 이 시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법은 역설이다. <보기>의 시에서 '차갑지만 따뜻한'은 모순된 표현이지만, 아빠의 차가운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2 소설

초차근개념 이해

028~031쪽

1 × 2 인물 3 직접 4 1인칭 주인공 5 × 6 ○  
7 결말 8 ○ 9 반어 10 × 11 ○ 12 맥락

초차근개념 적용 내가 그린 히말라야사다 그림

032~033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사생 대회 결과를 바로잡지 않은 두 인물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 소설이다. 성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주인공이 서술자로 교차하면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심리와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다.

• 핵심 보기

<1>의 '나'	<0>의 '나'
사생 대회의 장원이 자신이었지만 참가 번호를 잘못 적어 상을 받지 못했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심사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던 일을 서술함.	사생 대회의 장원이 바뀐 것을 알게 되면서 당황했고, 자신에게 기대한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일을 서술함.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두 명이 교차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자의 심리와 대응을 서술함.

이문 체크 1 × 2 ○ 3 회상 4 × 5 ○

이 글의 서술상 특징 1 ①

두 주인공의 상반된 처지 2 ④

- 이 글은 두 주인공이 서술자로 교차하며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 내면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그림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님을 알고 당황하며 사실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주 선생님'의 품에서 울었던 일이 창피하고,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결국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보충 자료

| 이 소설이 한 서술자의 시점에서만 서술되었다면? |

- 한 서술자의 고백적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서술자의 심리만 드러나서,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 한 인물의 관점만 알 수 있고 다른 인물이 무슨 생각으로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독자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김 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김 첨지'의 그 하루는 표면상으로는 거둬드는 행운에 뜻하지 않게 큰돈을 벌게 된 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죽음에 이르는 큰 불행이 닥친 날이다. 이와 같은 결말의 반어적인 상황과, 주인공의 비참한 하루를 '운수 좋은 날'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제목 모두 작품의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운수 좋은 날	운수 나쁜 날
오랜만에 손님이 많아 여느 날과 달리 많은 돈을 벌게 된 날	병든 아내가 죽은 불행하고 비참한 날
↔	
반어의 사용과 그 효과	
계속된 행운으로 돈을 많이 번 운수 좋은 날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아내가 죽은 불행한 날이라는 반어적 상황을 통해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작품의 비극성을 부각함.	

지문 체크 1 비 2 ○ 3 × 4 ○ 5 설명탕

'김 첨지'의 심리와 상황 1 ⑤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 2 ②

- 1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김 첨지'에게 오늘은 일을 나가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김 첨지'는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아내가 병까지 앓고 있어 돈벌이가 급하다. 따라서 '김 첨지'는 아내에게 서운한 것이 아니라 병든 아내를 두고 일하러 나온 것에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다.

▶ **오답 풀이** ① (다)의 "맛볼듯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라고 하며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돈벌이에 나서는 '김 첨지'의 모습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난다.

② 취중에도 아내를 먹이고자 설명탕을 사 가는 모습에서 쌀쌀맞은 겉 태도와는 다른 '김첨지'의 속정이 드러난다.

③ (라)에 아픈 아내가 염려되어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지는 '김 첨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가), (나)에 아침 땀바람에 앞집 마마님과 양복쟁이를 각각 전차길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팔십 전을 받은 일이 흔치 않다고 나와 있다.

- 2 이 글은 표면상으로 '김 첨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 좋은 날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을 맞이하여 비극적 결말을 맺고 있다. 따라서 제목에서 암시되는 행운과 서사적 사건이 전혀 반대로 전개되는 반어적 상황을 통해 작품의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충 자료

| 이 소설에 나타난 반어의 복잡성 |

전체 이야기 측면의 반어	'김 첨지'에게는 운수 좋은 날, 즉 뜻밖에 수입이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아내가 죽은 날이 됨.
제목의 반어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날이지만, 작가는 그 반대의 뜻을 가진 '운수 좋은 날'로 제목을 붙임.
인물의 태도 측면의 반어	'김 첨지'의 속마음은 아내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겉 태도는 욕을 하며 쌀쌀맞게 대함.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193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서로 다른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가 곧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점순'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나'에게 감자를 주며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닭싸움으로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눈치 없는 '나'는 '점순'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여 흥미와 긴장을 유발한다. 또한 서술자의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산골 마을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핵심 보기**

서술자 '나'(1인칭 주인공 시점)
어수룩하고,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할 정도로 순박하여 '점순'의 심리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나'가 서술한 사건	
현재	오늘도 '점순'이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괴롭힘.
과거	• 나흘 전 '나'가 '점순'이 건넨 감자를 거절한 후로 '점순'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함. • '나'는 닭싸움에 이기기 위해 '나'의 수탈에게 고추장을 먹여 보지만 소용이 없음.
현재	• 닭싸움으로 빈사지경에 이른 수탈을 본 '나'는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탈을 때려죽임. • '나'와 '점순'이 화해하며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힘.

서술자를 '나'로 설정한 효과
• 독자도 아는 '점순'의 마음을 당사자인 '나'가 알아채지 못한 채로 사건을 전달하여 웃음을 줌. • 눈치 없는 '나'의 시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사춘기 소년과 소녀 사이의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남.

소주제 발단 닭싸움

1 ④ 2 ③ 3 ②

- 1 이 글은 1930년대 농촌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당시 농촌 마을 사람들의 피폐한 삶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비속어 '대강이, 주둥이, 계집애' 등과 (다)의 대화에 나타난 사투리를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②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나'는 무뚝뚝하고 순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고, '점순'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강원도 방언 등 토속적 어휘에서 이 소설의 배경인 강원도 농촌 마을의 향토적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⑤ (가)~(나)는 현재이고 (다)~(라)는 과거(나흘 전)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 2 이 소설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인 '나'의 생각과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서술자 '나'는 자신의 심리만 자세히 전할 뿐, '점순'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②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서술자 '나'는 주인공이자 중심인물로, 자신이 겪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3 '나'에게 따끈한 감자를 가져다주고 싶은 '점순'의 애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감자 세 알은 '나'를 향한 '점순'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토답토답

실력 쓰기 01 동백꽃 2

038~039쪽

소주제 전개1 감자 전개2 점순

1 ④ 2 ③ 3 ④

- 1 이 글에서 서술자 '나'는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전달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서술자가 '나'일 경우 '점순'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점순'의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렵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적 갈등보다는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눈치 없고 어수룩한 '나'를 통해 상황이 전달되면서 사춘기 소년과 소녀 사이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② 독자도 아는 '점순'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나'가 모르는 채로 사건을 전달하면서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③ 서술자 '나'는 '점순'의 속마음과 행동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나'가 모르는 '점순'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 2 '나'는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가 '점순'에게 느끼는 미묘한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은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한 뒤부터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나'와 '점순'의 갈등이 드러나고 심화된다.

② '점순'은 닭싸움을 통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닭싸움은 '점순'이 '나'에 대한 애정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④ '점순'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화가 나고,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닭싸움을 붙이고 있다.

⑤ '점순'은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나'에게 감자를 건네주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복수하기 위해 '나'의 닭을 괴롭힌다.

- 3 (마)에서 '점순'은 마름의 딸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마름인 '점순'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순'에게 잘못하면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점순'의 횡포에도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있다.

토답토답

실력 쓰기 01 동백꽃 3

040~041쪽

소주제 위기 고추장

1 ⑤ 2 ② 3 ④ 4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 1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므로 작가의 의도나 주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도 아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가 서술자일 때보다 해학적 분위기가 줄어들고,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이다.

②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의 속사정과 인물의 심리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 2 (자)에서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점순'네 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닭싸움에서 '나'의 닭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자 기뻐한다. 그러나 (차)에서 금세 상황이 역전되어 '점순'네 수탉에게 '나'의 수탉이 공격을 당해 지게 되자 실망하고 만다.

- 3 '나'는 '점순'이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이유와 '점순'의 속마음을 모르고,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 그러나 '점순'네 닭이 한 번 쏘인 양갓음으로 연거푸 '나'의 닭을 공격하여 닭싸움에서 이기자 '점순'은 상황이 역전된 것에 대한 통쾌함을 드러내어 '나'를 약 올리고 '나'의 관심을 끌고자 일부러 크게 웃는다.

- 4 '나'는 닭싸움에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닭에게 고추장만 먹이면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추장을 먹인 자신의 닭이 싸움에서 지자 고추장을 적게 먹여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가 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토답토답

실력 쓰기 01 동백꽃 4

042~043쪽

소주제 절정 때려죽임 결말 동백꽃

1 ③ 2 ⑤ 3 노란 동백꽃

- 1 '점순'이 울고 있는 '나'에게 "그럼 너 이담부텨 안 그럴 터냐?"라고 말한 의도는 앞으로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나'는 '점순'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 따라서 '나'가 '점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점순'이 '나'와의 화해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후 '점순'네에 미움을 사서 소작하는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울음을 놓았다.

② '점순'은 '나'가 울음을 보이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④ '나'는 '점순'이 "그럼 너 이담부텨 안 그럴 터냐?"라고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점순'이 닭을 죽인 사실을 이르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⑤ '점순'과 '나'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힌 것은 '점순'이 '나'의 어깨를 밀어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순'은 '나'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A]의 서술자를 '점순'으로 바꾼다면 '점순'이 주인공 '나'로 등장하고, [A]의 '나'는 이름이 주어진 인물로 바뀌게 된다. '점순'의 시점으로 서술하면 '점순' 자신의 심리는 직접 서술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서술할 수 있을 뿐 심리는 서술할 수 없다. 따라서 ⑤는 '점순'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3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 사이에 절정으로 무르익어 가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나'가 '점순'에게서 느낀 미묘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실전

문제

01 동백꽃

044~045쪽

1 ②    2 ③    3 ⑤    4 감자    5 ⑤    6 ⑤    7 ②  
8 ②

1 (가)에서는 '나'가 겪는 '오늘'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나)에서는 '나홀 전'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 이 글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나'의 생각과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나' 한 명이다. 두 명의 서술자가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의 예로는 성석제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사도 그림」이 있다.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3 이 글에서 '점순'은 감자를 건네면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수룩하고 둔한 '나'는 '점순'의 마음과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가 신분 차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점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그렇잖아도 조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를 통해 '나'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이 맛있는 봄 감자를 '나'에게 주면서 '나'에게 이성적 호감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③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점순'은 감자를 주며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지만 '나'가 호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자 무안함과 야속함을 느낀다.

4 '점순'은 '나'의 관심을 끌고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감자를 준다. 하지만 '점순'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직접 드러내기에도 부끄러운 나머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생색을 낸다. 이에 기분이 상한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5 이 글의 서술자 '나'는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의 이성적인 관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점순'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좋아하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나'를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재미를 느끼게 한다.

6 (다)에서 '점순'이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인 것인지 물었을 때 '나'는 당당한 척 일어나지만 이내 마름네 집 닭을 죽인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땅을 뺏기고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피치배 계층의 저항 정신이 느껴진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나'가 없는 사이에 또다시 닭싸움을 시키고 있다. 이 모습을 통해 '점순'이 집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은 '나'를 약 올리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닭싸움을 붙여 놓고 태연하게 호드기를 붙고 있는 것이다.

③ '나'는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했고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집안 관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점순'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 모습은 닭싸움에서도 반영이 되는데, '나'의 닭은 약해서 '점순'의 닭에게 계속해서 당하기만 한다.

④ (나)에서 닭싸움 이후 '점순'에 대한 '나'의 인상이 호감에서 미움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7 '점순'은 '나'가 앞으로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 ㉡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8 '노란 동백꽃'은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풋풋한 감정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하지만 '나'와 '점순'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동백꽃으로 인한 시각적, 후각적 효과를 바탕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골에 피어 있는 동백꽃의 모습을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나'와 '점순'이 노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나'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자 땅에 꺼지는 듯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끼는 모습에서 '나'에게 '점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라)의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에서 '나'와 '점순' 사이에 생겨난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답토닥

실력 쓰기 02 사랑손님과 어머니 ①

046~047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여섯 살 난 '옥희'의 시선을 통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랑과 이별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이고 단순한 구성 방식을 취하며, 어린아이가 화자로서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저씨'를 관찰하고 이를 구어체와 경어체의 문장을 통해 이야기 하듯 서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통적인 윤리관 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전개되는 남녀 사이의 연정을 어린 '옥희'의 눈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자칫 통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른들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다.

• 핵심 보기

'나' = 서술자이자 관찰자(인칭 관찰자 시점)	
•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여섯 살 여자아이임.	
•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 서술함.	
• 어른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함.	



'나'는 알 수 없는, 주인공의 성격과 심리	
'어머니'	전통적·보수적 윤리 의식의 소유자로 모성애가 강함. '아저씨'를 향한 애정이 있지만 이별을 선택함.



'아저씨'	다정하고 친절함. '옥희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녀를 향한 애정 표현에 있어서는 소극적임.
-------	--



서술자를 '나'로 내세운 효과	
•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한 말투로 독자의 웃음을 자아냄.	
•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전달함.	
• 어린아이라 눈치채지 못한 내용을 독자가 상상하며 읽을 수 있음.	

소주제 발단 사랑방

1 ① 2 ③ 3 ③ 4 달걀

- 이 글은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하여 구어체와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듯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의 서술자와 인물들은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주인공이 과거에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어른들의 숙물적인 모습도, 우회적인 비판의 방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사건의 긴장감을 긴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이 글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여섯 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하므로 '나' 이외의 인물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오답 풀이** 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서술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ㄷ.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한다.
- '어머니'는 사랑손님이 있는 방을 출입할 사람은 '외삼촌'밖에 없다고 하고, '외삼촌'은 요새 세상에 남녀가 내외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삼촌'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달걀을 좋아하는 '나'(옥희)에게 '아저씨'가 달걀을 주면서 서로 친해진다. 또한 '어머니'는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나'의 말을 들은 이후 달걀을 많이씩 사며 '아저씨'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토답토닥

실력 쓰기 02 사랑손님과 어머니 ②

048~049쪽

소주제 전개 아빠 위기 꽃

1 ① 2 ⑤ 3 ④

- (바)에서 '아저씨'는 예배당에 와서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 '아저씨'가 예배당에 간 이유는 '옥희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이지, 성실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은 아니다.
-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 [A]를 1인칭 주인공(사랑손님과 '아저씨')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서술자를 '옥희'에서 '아저씨'로 바꾸어 설정하면, 독자가 '아저씨'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를 '옥희'에서 '아저씨'로 바꾼다고 해서 사건의 극적 반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서술자가 '아저씨'로 바뀌면 '옥희'의 내면이 아니라 '아저씨'의 내면을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③ '아저씨'도 작품 속 인물이므로, 서술자는 여전히 작품 안에 위치한다.  
 ④ '아저씨'가 서술자라도 모든 사건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어머니'는 '옥희'가 준 꽃을 받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며 목소리도 몹시 떨린다. 이를 통해 꽃은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은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봉건적인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에서 빚어진 것이다.

토답토닥

실력 쓰기 02 사랑손님과 어머니 ③

050~051쪽

소주제 절정 풍금 결말 추억

1 ② 2 ④ 3 ④ 4 풍금, 꽃, 달걀

- 이 글의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저씨'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자)에서 '어머니'가 재가를 할 경우 듣게 될 말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3 '나'는 '아저씨'와 '어머니'의 이별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차를 보고선 마냥 기뻐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 서술자는 어른들의 상황이나 저지,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로 독자는 오히려 재미를 느끼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 4 '어머니'는 떠나는 '아저씨'를 멀리서 배웅하고선 집에 돌아와 풍금 뚜껑을 닫고, '아저씨'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꽃을 '나'를 시켜 버리라고 한다. 또한 '아저씨'가 좋아하는 달걀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

### 실전

#### 문제 02 사랑손님과 어머니

052~053쪽

- 1 ④, ⑤    2 ③    3 ⑤    4 전지적 작가    5 ④    6 ③  
7 ⑤

- 1 이 글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가)에서는 '나'(옥희), (나)에서는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서술자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여자아이로,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외의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이 작품의 서술자는 어린아이답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2 (마)에서 '나'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즐겨 한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아저씨'는 (다)에서 '어머니'를 닮은 '나'를 귀여워하고 (라)에서 '어머니'를 보기 위해 일부러 예배를 간다. '어머니'는 (마)에서 '아저씨'가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꽃을 '나'에게서 받고 떨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저씨'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아저씨'는 (다)와 (라)에서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내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아저씨'가 애정 표현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 '아저씨'가 '나'의 동리에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고, '아저씨'에게 하숙비를 받으면 '나'의 집 형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통해 '아저씨'가 '나'의 집에서 하숙하게 된 필연성이 나타난다.
- ⑤ (나)에서 '나'가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라고 소개하고 있다.
- 3 예배당의 '남자석'은 1930년대 남녀가 내외하던 보수적인 시대 상황을 잘 보여 준다.
- 4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글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5 어린아이인 서술자는 다른 인물, 특히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과 심리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 또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 6 (나)에서 '어머니'는 여성의 재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당시의 봉건적 가치관을 이겨 내지 못하고 '아저씨'와 이별하려 한다. 그러나 또다시 이별하게 될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7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 안에 종이를 넣어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이 수 없음을 전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종이에는 '아저씨'의 사랑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결심을 담은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며, '아저씨'가 결국 편지의 내용에 수긍하며 떠나게 된다.

### 실력

#### 샘기 03 흑설 공주

054~055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널리 알려진 동화 「백설 공주」를 작가의 상상과 가치를 더해 내용과 주제를 바꾼 작품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에 관한 작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원작 「백설 공주」의 인물 구성, 인물의 성격, 이야기 요소 등을 변형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보편적 아름다움에 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움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 핵심 보기

원작 「백설 공주」	재구성작 「흑설 공주」
흰 피부를 가진 '공주'의 외모를 질투한 '새 왕비'에 의해 '공주'가 죽고, 이웃 나라 '왕자'가 '공주'를 살림.	검은 피부의 '공주'를 '새 왕비'가 독을 바른 책을 이용하여 죽이고, '나무꾼'에 의해 '공주'가 깨어남. 이후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알려 줌.
<b>작가의 의도</b> 작가는 인물 구성과 이야기 요소를 재구성하여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	

#### 소주제 발단 흑설 공주

- 1 ③    2 ⑤    3 ④    4 하얀 망토

- 1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동화 「백설 공주」를 원작으로 하여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내용과 주제를 바꾸어 재구성한 작품이다.
- 오답 풀이** ① 작가가 아름다움에 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이 더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주인공의 이름과 특성뿐만 아니라 이야기 요소도 변형하여 재구성했다.
- ④ 시대적 배경은 원작과 동일하다.
- ⑤ 원작 「백설 공주」와 재구성한 작품 「흑설 공주」는 둘 다 동화이고,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2 원작과 달리 이 글에서는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바람대로 피부가 새까만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비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원작과 공통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이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으면”을 통해 ‘왕비’가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오, 정말로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구나.”를 통해 ‘왕비’의 바람대로 피부가 검은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② 원작과 달리 (가)에서 창밖에 검은 눈이 내리고 있는 장면이 새롭게 나타나 있다.

③ 원작에서 공주는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이 글에서 공주는 검은 피부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눈에 띄는 것을 꺼려했다.

④ 이 글에서 공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아다니다 책을 좋아하게 된 내용이 새롭게 나타나 있다.

- 3 사람들은 하얀 피부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서 ‘흑설 공주’의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흑설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무시하였다.

- 4 ‘흑설 공주’는 하얀 망토를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니는데, 이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 준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다. ‘흑설 공주’는 어머니가 남긴 망토에서 위로를 받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

토답토닥

실력

쌍기 03 흑설 공주 2

056~057쪽

소주제 절정 왕비

1 ④ 2 ⑤ 3 ② 4 ③

- 1 원작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관점이 반영되므로, 원작에 나타난 주제나 관점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원작과 다르게 검은 피부의 ‘흑설 공주’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동화인 ‘백설 공주’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원작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변화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② 이 작품은 ‘공주’가 흰 피부가 아니라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점과 ‘새 왕비’가 독이 든 사과가 아니라 독과 해독제가 함께 발라진 책으로 ‘공주’를 죽이려 했다는 점 등 원작의 인물 구성과 이야기 요소를 변형하였다.

③ 이 작품은 원작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새 왕비’가 ‘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울의 말에 질투를 느끼고 독을 사용하여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점 등 원작과 다르지 않은 요소도 많다.

⑤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원작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담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보충 자료

### 원작을 재구성하는 방법 I

내용 바꾸기	줄거리 바꾸기, 인물의 성격 변화, 새로운 인물의 삽입 등 작품의 내용을 바꿈. 예 비극적 결말로 끝난 ‘백설 공주’
형식 바꾸기	작품의 서술 방식, 시점 등 형식을 달리함. 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백설 공주’
맥락 바꾸기	작품 속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꿈. 예 현대판 ‘백설 공주’

- 2 원작에서는 ‘새 왕비’가 노파로 변장하여 독이 든 사과를 건네 ‘공주’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새 왕비’가 장사꾼 영감으로 변장하여 독 사과 대신 독과 해독제가 함께 발라진 책을 통해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오답 풀이** ㄱ. 이 글과 원작 모두 공주의 생모인 ‘왕비’가 죽고 난 뒤 왕은 ‘새 왕비’를 맞이들인다. 또한 ‘새 왕비’가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데 거울이 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하자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는 점은 이 글과 원작의 공통점이다. ㄴ. 이 글과 원작 모두 거울로부터 ‘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새 왕비’가 ‘사냥꾼’에게 공주를 죽이도록 시키지만, ‘사냥꾼’이 ‘공주’의 처지를 동정하여 ‘공주’는 목숨을 구한다.

- 3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흑설 공주’라고 하자, ‘흑설 공주’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새 왕비’는 ‘공주’만 사라지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흑설 공주’를 직접 없애려고 한다.

- 4 ‘새 왕비’는 ‘흑설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책이라는 것을 알고 책을 이용하여 공주를 해치려고 한다. 책장에 독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해독제까지 바른다는 점에서 책의 해독제로 인해 ‘흑설 공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토답토닥

실력

쌍기 03 흑설 공주 3

058~059쪽

소주제 결말 나무꾼

1 ④ 2 ⑤ 3 ④ 4 ‘흑설 공주’가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1 이 글은 ‘흑설 공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며, 왕궁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원작의 결말과 다르다. 이와 같은 결말을 통해 작가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말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 2 이 글에서 ‘흑설 공주’를 살린 사람은 ‘나무꾼’이고, 원작에서 공주를 살린 사람은 왕자이다. 둘 모두 공주가 깨어난 후 공주와 결혼하는 사이가 되므로 ‘공주가 깨어난 후 어떤 사이가 됐나?’에 대한 답변이 같다.



**오답 풀이** ① 원작은 왕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평범한 '나무꾼'으로, 왕자와 평민이라는 계층의 차이가 있다.

② 원작에서는 왕자의 입맞춤으로 공주가 살아나지만, 이 글에서는 '나무꾼'이 슬픔의 눈물을 흘려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공주가 살아난다.

③ 이 글에서 '흑설 공주'와 '나무꾼'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왕자와 공주의 비슷한 취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작에서는 왕자가 공주의 미모에 첫눈에 반하지만, 이 글에서 '나무꾼'은 오래전부터 '흑설 공주'를 사모했었다.

3 '나무꾼'의 진심이 담긴 슬픔의 눈물에 의해 공주가 다시 살아난다. 이를 통해 나무꾼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더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4 '흑설 공주'는 '나무꾼'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낀다. 공주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자 다른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게 된 것이다.

## 실전

### 문제 03 흑설 공주

060~061쪽

1 ① 2 ② 3 ① 4 ② 5 ③ 6 ② 7 ③

8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1 이 글은 원작에 작가의 상상력과 가치관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이지 상반된 독자층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은 아니다.

2 (다)에서 '흑설 공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데 길이 들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왕비'가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고 싶다는 바람대로 검은 눈처럼 새까만 공주가 태어난다는 점에서 '왕비'의 바람은 '흑설 공주'의 탄생을 암시한다.

③ (라)에서 '새 왕비'는 '흑설 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울의 말을 듣고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흑설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새 왕비'가 질투심이 많고 외면적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흑설 공주'가 '왕비'가 떠 준 하얀 망토만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을 통해 하얀 망토는 어머니의 유품이자 '흑설 공주'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⑤ 원작과 달리 책에 독만 바른 것이 아니라 해독제도 바른 것은 해독제를 통해 '흑설 공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작가는 하얀색 피부만이 아름답다는 기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검은색 피부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다움이 외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아름다움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주인공을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공주로 변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4 '새 왕비'가 자신보다 아름다운 '공주'를 두고 볼 수 없어(㉔) 일곱 난쟁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㉕) 것은 이 글과 원작의 공통된 내용이다.

**오답 풀이** ㉔ 원작에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㉕ 원작에는 '공주'가 책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㉖ 원작은 '새 왕비'가 사과에 독을 바르지만, 이 글은 책에 독을 바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이 글을 통해 작가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③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작가의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외면에만 집착하여 자신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6 원작은 공주의 미모에 반한 왕자가 공주를 살리지만, 이 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주'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모해 온 평범한 '나무꾼'이 진심이 담긴 슬픔의 눈물로 '공주'를 살리는 것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나무꾼'처럼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더 소중하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무꾼'이 '공주'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공주'를 사모해 왔다고 설정한 것에서, 외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원작을 향한 작가의 비판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③ '나무꾼'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공주'를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공주'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④ '나무꾼'과 '흑설 공주'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특별한 인물인 '왕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인 '나무꾼'을 등장시킨 것은 평범한 인물을 통해 진실된 마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서라고 볼 수 있다.

7 거울은 원작에서나 재구성된 작품에서나 아름다움을 판단하여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하지만 재구성된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거울은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거울의 변화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보충 자료

### |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에서 '거울'의 역할 비교 |

	원작	재구성된 작품
공통점	아름다움을 판단하여 말해 주는 마법의 거울로,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함.	
차이점	'새 왕비'가 '백설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사건 이후로는 후반부까지 등장하지 않음.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바꾸며, 결말까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함.

8 '흑설 공주'가 모든 사람이 지닌 각각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아름다움을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할 수 없고, 누구나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독단토익

실력 쓰기 04 이상한 선생님 ①

062~063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인공 '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제에 동조하였다가 해방 후에는 일본에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던 미국을 찬양한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한 쪽에 붙어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하고 희화화하여 우회적으로 풍자함으로써 부정적인 인물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박 선생님'		'강 선생님'
키가 작아 '뽀뽀', '뽀뽀', 머리가 커서 '대갈장군'이라 불리며, 사납게 생긴.	외모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도 너부룩하며, 온순하게 생긴.
일제에 동조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말만 쓸 것을 강요함.	일본 말 사용 태도	수업 시간 외 평상시에는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씀.
초상난 집처럼 근심에 싸여 기가 죽어 있음.	해방에 대한 반응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기뻐함.
미국 말을 공부하여 미국에 협력하고 미국을 찬양함.	해방 후 모습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 파면을 당함.

↓  
풍자를 통한 효과

-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행동과 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함.
- 인물의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부각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

소주제 발단 외모

1 ②    2 ④    3 ②    4 ①    5 이상한 선생님

- 1 이 작품은 '나'가 주인공인 '박 선생님'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③ '나'는 주인공 '박 선생님'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관찰할 뿐 심리를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⑤ 작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2 '강 선생님'은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순한 사람으로, '박 선생님'을 장난으로 먼저 건드리는 것일 뿐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일본 정치 때에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통해 친일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강 선생님'이 장난을 걸면 '박 선생님'이 얼굴을 바짝 대고 사나움이 줄줄 흐른다는 내용을 통해 여유가 없고 화를 잘 내는 사나운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박 선생님'이 키가 작아서 '뽀뽀', '뽀뽀'라는 별명과, 머리가 커서 '대갈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⑤ '박 선생님'은 왜소하고 웅크리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강 선생님'은 키와 몸집이 크고 온순하다.

- 3 (가)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양을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풍자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4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모습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견원지간(犬猿之間)과 어울린다.

▶ **오답 풀이** ② 호형호제(呼兄呼弟): 서로 형이니 아우니 하고 부른다는 뜻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로 지냄을 이르는 말이다.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이르는 말이다.

⑤ 동고동락(同苦同樂):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한다는 말이다.

- 5 이 글의 서술자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부터 성격까지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처음부터 그를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독단토익

실력 쓰기 04 이상한 선생님 ②

064~065쪽

소주제 전개 일본 말

1 ④    2 ③    3 ①    4 ⑤

- 1 (라)에 당시 조선 사람들의 조선말 사용 태도가 드러나는데,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외에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평상시에는 조선말로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다. (라)에서 일본 말을 '국어'라고 가르치면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라)~(마)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본 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조선말은 쓰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조선말을 쓰는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과 일본인 교사들이 혼을 내고, '박 선생님'이 엄한 벌을 주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을 혼내는 선생님이 많았다.

⑤ (라)에서 순사, 면 서기, 송 주사,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등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 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 '박 선생님'은 일본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평상시에도 일본 말만 사용하고,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엄한 벌을 주는 인물이다.

▶ **오답 풀이** ① (사)에 '박 선생님'이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고 천황 폐하의 위엄을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해 왔다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일본을 맹신하고 추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바)를 통해 '강 선생님'이 조선어를 쓰는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고, 학생들이 일본 말을 해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강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제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⑤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벌을 주고 일본 말만 사용하게 하지만,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고 자신도 의도적으로 조선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일본 말 사용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일본 말만 쓰고 학생들에게도 일본 말 사용을 강요하거나, 학생들끼리 싸운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조선말을 쓴 것을 혼내는 극단적인 모습을 풍자하여 '박 선생님'의 친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4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달리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에 조선말을 사용한다. 이는 일본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토달토달

#### 실력 쌓기 04 이상한 선생님 ③

066~067쪽

소주제 위기 조선

1 ④ 2 ② 3 ② 4 해방(독립)

1 (차)에서 '강 선생님'은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처럼 일제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차)에서 '강 선생님'은 같이 건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② (아)에서 '대석 언니'는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 말로 일본 천황을 욕하고 있다.

③ (차)에서 '박 선생님'은 독립된 조국을 위해 태극기를 그리자는 '강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⑤ (아)에서 '나'는 '박 선생님'과 일본인 선생님들이 직원실에 모여 앉아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의 항복을 체감하고 있다.

2 '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박 선생님'을 꾸짖었다.

3 맹목적으로 찬양하던 일본이 패망하자 그동안 친일적인 행동을 해 온 '박 선생님'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친일 행적을 지적하는 '강 선생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4 (자)에서 '강 선생님'은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조선이 독립한 기쁨으로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덤빈다. 반면 '박 선생님'은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풀이 죽어 '강 선생님'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토달토달

#### 실력 쌓기 04 이상한 선생님 ④

068~069쪽

소주제 절정 미국 결말 이상한

1 ② 2 ⑤ 3 ⑤ 4 박 선생님, 두꺼비

1 이 글의 서술자 '나'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로, '박 선생님'이 왜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 상황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전달할 수 없다.

③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인 '나'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박 선생님'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세상 물정 몰랐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④ '나'는 '박 선생님'이 미국을 칭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박 선생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박 선생님'을 부정적인 인물로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다.

2 '박 선생님'은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찬양했던 것처럼, 광복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과 싸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 글에서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물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인 풍자를 통해 기회주의적 처세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기회주의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주된 표현 방법은 비유가 아니라 풍자이며, 경고의 의도로도 보기 어렵다.

③ 희화화된 대상인 '박 선생님'은 시대적 아픔을 극복해 가는 인물이나 아니라 시류에 따라 강한 쪽에 붙어 이익을 얻으려 하는 기회주의자이다.

④ 풍자는 직접 공격하는 표현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을 희화화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4 이 글의 풍자의 대상은 시류에 따라 힘 있는 나라에 붙어 이랬다저랬다 하는 '박 선생님'이고, <보기>의 풍자의 대상은 힘 없는 '파리'를 괴롭히면서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백송골' 앞에서 굽실거리는 '두꺼비'이다. 두 대상 모두 당시 사회에서 강자의 권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작가가 희화화를 통해 비꼬는, 비판의 대상이다.

- 1 ③    2 ④    3 ①    4 '박 선생님'은 일본을 찬양했으나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후로 일본을 적대시한다.    5 ④  
6 ③    7 ③    8 ⑤    9 기회주의적인 태도

1 이 글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기회주의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전쟁의 참상과 일본의 몰락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인 '박 선생님'의 모습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②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 전후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주인공인 '박 선생님'은 대조적인 인물인 '강 선생님'과 비교되면서 외모나 성격, 일본에 대한 태도 등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⑤ 키가 작고 머리가 큰 외모와 조선말을 쓰는 학생을 혼내는 행동 등 '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하고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부정적 인물인 '박 선생님'은 외모도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긍정적 인물인 '강 선생님'은 외모도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즉 인물의 부정적 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외모도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박 선생님'의 별명인 '뽕뽕', '뽕뽕'은 키가 작은 것에서 비롯된 별명이고, '대갈장군'은 큰 머리에서 비롯된 별명이다.  
② '강 선생님'은 해방 소식을 듣고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자 한다.  
③ '박 선생님'의 모습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⑤ (다)에서 학생들이 싸운 것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사용한 것에 화내는 모습에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 태도를 알 수 있다.

3 일제 강점기에 혈서로 일본에 지원병으로 지원했던 일, 친구끼리 싸운 것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쓴 것에 대해서만 혼내는 모습, 일본을 맹신하며 추종했던 모습 모두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박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편에 서서 조선말을 쓰는 학생을 때리고, 학생들에게 일본이 결코 전쟁에 지지 않고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본이 패망하자 태도를 바꿔 일본을 적대시한다.

5 이 글의 서술자는 순진한 어린아이로, 주인공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할 뿐 심리까지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 오답 풀이** ①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⑤ '나'는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 등의 세상 물정을 모르고, '박 선생님'이 일본을 찬양했다가 해방 후에 미국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웃음을 유발한다.  
③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박 선생님'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6 '박 선생님'은 해방 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알고 시대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여 미국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했지만,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한다.  
② '나'는 해방 전후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④ (나)에 '강 선생님'이 빨갱이라는 '박 선생님'의 모함 때문에 파면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와 있다.  
⑤ (다)에서 '박 선생님'은 미국을 찬양하면서 학생들에게 미국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7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 말을 배워 통역을 해주며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과 과자를 얻어먹는 모습에서 미국에 붙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박 선생님'은 미국에 일본 천황보다 훌륭한 '돌맹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선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9 작가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을 찬양하고, 해방 후 미국의 힘이 커지자 미국을 찬양하며 이익을 챙기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기회주의적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신분제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여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답지 못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양반'은 어질고 독서를 좋아하는 선비지만 자기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도 없이 무위도식할 뿐이다.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함과 비생산성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작가는 이러한 '양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부자' 또한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핵심 보기**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	
1차 증서	•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나열함. • 체면과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남.
2차 증서	• 무위도식하며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나열함. •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남. • 아래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남.



풍자 대상	• 비생산적이고 무능한 양반 •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
-------	--



작가의 의도	풍자를 통해 양반의 경제적 무능과 허례허식, 백성에 대한 횡포를 신랄하게 비판함.
--------	---

소주제 **발단** 양반 **전개** 1 부자

- 1 ⑤    2 ③    3 ②    4 ③    5 양반은 한 톨어치도 안 되는구려!

- 1 돈으로 신분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양반'이 관아에서 빌린 환자를 갚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부자'를 통해 당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들은 양반보다 부자라고 해도 평민이어서 양반에게 수모를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양반 신분을 팔고 평민이 된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모습이나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는 모습에서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나 호칭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2 글만 읽고 빌린 환자는 갚지 못해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이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 3 (가)에서 '양반'이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환자를 갚을 방법을 몰라 밤낮으로 우는 모습을 통해 현실 문제 대응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반의 아내'는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라고 말하면서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나. '군수'는 '양반'이 '부자'에게 신분을 판 것을 몰랐기 때문에 평민처럼 행동을 하는 '양반'을 보고 깜짝 놀라 왜 스스로를 욕되이 낮추는지 물어보았다. 따라서 '군수'는 '양반'의 겸손함에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양반인데 평민처럼 행동하는 것에 놀라워한 것이다.  
 라. '부자'는 환자를 못 갚는 '양반'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신분을 산 것이 아니라 부자이지만 평민이라서 천한 대접을 받고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며 사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양반 신분을 산 것이다.

- 4 고귀하고 이름 높던 '양반'이 신분을 팔아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웃음을 주고,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
- 5 '양반의 아내'는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라고 말하면서 비생산적이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양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비판적인 의식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력도량**  
**실력** **쌓기** 05 양반전 ② 074~075쪽

**소주제** 전개 2 매매 **절정** 1 규범

- 1 ④ 2 ③ 3 ① 4 사사로이 거래를 하면서 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군수의 제안 때문이다.

- 1 이 글은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던지지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인 풍자를 사용하여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풍자는 대상에 대한 연민이 아닌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

- ② 해학에 대한 설명으로,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냉소와 공격성을 담고 있다.  
 ③ 대상의 부조리한 면을 간접적으로 은근히 비판한다.  
 ⑤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 2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생활 태도, 의무 등 과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양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증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적절하다.

- 3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 ~ 《동래박의》를 얼음에 박 밀 듯 줄 줄 외워야 한다.'를 통해 양반 계층이 실생활과 관련 없는 옛 책들을 외우듯이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부분에서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③ 증서에 담긴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은 공허한 관념과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④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 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 부분에서 체통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소한 행동조차 격식에 따르는 모습이 드러난다.  
 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를 통해 현실적 문제(돈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다.

- 4 (라)에서 '군수'는 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반'과 '부자'의 신분 거래를 공증하기 위한 증거 문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능력도량**  
**실력** **쌓기** 05 양반전 ③ 076~077쪽

**소주제** 절정 2 권리 **결말** 양반

1 ③ 2 ④ 3 ① 4 ② 5 도둑놈

- 1 작가는 무위도식하고 부정부패한 당대의 양반답지 못한 양반을 비판함과 동시에 실사구시를 중시하지만 평민이 부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양반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꼬집고 있다. 이는 양반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반의 자세와 문화에 대해 양반 계층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2 이 글은 풍자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대상을 은근히 폭로하여 인상 깊게 표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이 재미를 주는 동시에 이면의 현실이나 작가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오답 풀이** ㄱ. 양반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조롱하는 것이다.  
 ㄴ. 모순된 표현은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양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3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난다. 도덕적 삶을 강요하는 양반들의 모습이 아니라 무위도식하며 향락에 빠져 있는 양반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② 권력을 세습하여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③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벼슬에 오르면 더욱 무위도식하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④ 양반이 문과의 과거 합격 증서를 얻으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⑤ 이웃집 소를 뺏아다가 자기 논을 먼저 갈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 김을 매게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등 양반이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4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내용을 들은 '부자'는 온갖 특권을 누리는 양반의 삶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는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한 '군수'의 의도대로 돌아간 것이다.

- 5 (아)에서 부자가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절정에 달한 부분이다. '도둑놈'이라는 말을 통해 양반에 대한 작가의 신랄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전

문제 05 양반전

078~079쪽

1 ③    2 ②    3 ④    4 ②    5 ②    6 ④    7 ⑤  
8 ③    9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풍자한다.

- 1 이 글은 양반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실생활에 관심을 갖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모습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양반의 아내'가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무능력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④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로, 그가 쓴 소설은 이전의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학문을 비판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2 이 글에 쓰인 주된 표현 방법은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우스꽝스럽게 그려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이다.

**오답 풀이** ㄷ. 풍자는 사회나 인물의 결함을 조롱하거나 비꼬면서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비판이나 폭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ㄹ.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여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은 반어이다.

- 3 '양반의 아내'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만 보일 뿐 '양반'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4 양반은 가난해도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자신은 부자라도 천한 대접을 받으며 수모를 겪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부자'는 사회적으로 천한 대접을 받지 않고 양반의 특권을 누리려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한 것이다.

- 5 이 글의 작가는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양반 신분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 무능하고 비생산적이며,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즉, 이 글을 통해 작가는 몰락하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의 방식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 6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 생활 태도 등의 규범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타나 있다.

- 7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모습은 (다)에서 '문과 홍패가 이 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돈 자루다.'에 나타난다. ㉠은 백성에 대한 양반의 수탈과 횡포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소리를 길게 뽀아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는 걸치레와 품위를 중시하여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다.

②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당시 양반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③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소한 행동조차 격식에 따르는 모습이다.

④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은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이다.

- 8 '부자'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양반 신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 누리는 갖가지 특권이 부당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모습이 도둑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여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도둑놈'이라는 말에 양반이 부도덕한 존재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②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누리는 특권과 그 특권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와 있다. '부자'는 양반이 누리는 특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도둑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④ '부자'는 두 번째 매매 증서 내용을 통해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알게 되어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된다.

⑤ '도둑놈'이라는 말은 부패한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절정에 달한 표현이다.

- 9 (라)에는 양반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난다.



1 ○ 2 × 3 상연 4 시나리오 5 서술자 6 ×

- **작품 설명:** 이 희곡은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잘 그려진 작품으로 들판에서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제 앞에 '측량 기사'가 등장하며 극이 시작된다. '측량 기사'와 '조수들'의 계략에 속아서 형제끼리 벽을 치고 충돌을 겨누며 다투게 되지만, 요란한 천둥소리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형'과 '아우' 모두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민들레꽃을 보면서 서로 우애를 다졌던 옛날을 회상하고 마침내 화해에 이르게 된다. 이 글은 벽, 전망대, 총, 민들레 등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분단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형제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남북의 분단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핵심 보기

소재	역할	상징적 의미
말뚝과 빗줄	'형'과 '아우'를 갈라놓아 형제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됨.	• 형제의 대립과 갈등을 상징함. •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었던 삼팔선을 상징하기도 함.
벽	'측량 기사'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형제간의 오해와 의심이 깊어지게 됨.	•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 소통의 단절을 상징함. • 남북 분단으로 왕래가 차단된 휴전선을 상징하기도 함.
전망대	상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형제간의 갈등을 고조시킴.	형제간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함.
총	형제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감.	대립과 긴장, 갈등의 정점을 상징함.
민들레꽃	형제간의 우애의 증표로 갈등 해소의 매개물임.	형제간의 우애,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상징함.



희곡은 현재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극적 대립과 갈등을 통해 압축적으로 담은 문학으로, 이 희곡에서 소재는 이러한 희곡의 특징을 잘 보여 줌. 특히, 사건 전개 과정과 갈등의 변화, 상징적 주제를 부각함.

지문 체크 1 민들레꽃 2 × 3 측량 기사 4 벽  
5 ○ 6 ○ 7 우애

이 글의 갈래상 특징 1 ③

이 글을 상연할 때 유의할 점 2 ②

- 이 글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으로, 무대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전환이나 등장하는 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게 된다.
- '조수들'과 '측량 기사'는 '형'에게 위기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며, '형'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방백은 무대의 상대역에게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 **작품 설명:** 이 드라마 대본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재구성하여 쓴 작품으로, 소년과 소녀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원작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원작과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극적으로 각색하였다. 가령, '소녀'의 어머니가 재가하면서 '소녀'를 '윤 초시'에게 맡기러 오는 사건, '윤 초시'의 집이 '장 씨'에게 넘어가는 사건, '윤 초시'가 아픈 손녀를 돌보는 사건 등 원작에는 없는 여러 사건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이후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룸으로써 '소년'의 아픔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장 씨', '양평택', '봉순'과 같이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인물도 추가되어 극에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 • 핵심 보기

	원작	재구성된 작품
갈래	소설	드라마 대본(시나리오)
인물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됨.	• '소년'과 '소녀' 외에 '장 씨', '봉순', '양평택' 등이 추가됨. • '윤 초시'와 '소년 부모님'의 비중이 커짐.
사건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아는 것으로 끝남.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이후의 장면을 비롯하여 새로운 장면들이 추가됨.
배경	• 시간적 배경: 가을 • 공간적 배경: 개울가, 산, '소년'의 집 등	• 시간적 배경: 가을~겨울 • 공간적 배경: 읍내 의원, 학교, 찻집 등 다양한 공간적 배경이 추가됨.

소주제 절정 병

1 ⑤ 2 ④ 3 &lt;# 79&gt;

- 이 대본은 원작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원작에 없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 등을 추가해, 갈등 상황이나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각색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갈래는 드라마 대본(시나리오)으로, 소설과 같이 갈등과 대립의 문학에 속한다.

② 드라마 대본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③, ④ 이 글은 소설 「소나기」를 드라마 대본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 사건, 배경이 새로 추가되었다.

- 아픈 손녀를 업고 가며 병을 낫게 해 준다고 말하는 '윤 초시'의 모습에서 원작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윤 초시'와 '소녀'의 애뜻한 관계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난 할아버지가 올 엄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라는 '소녀'의 말에서 '소녀'의 엄마와 '윤 초시'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소녀'와 '윤 초시'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다.

② '소녀'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음은 <# 73> 이후의 장면인 <# 79>에서 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병약했던 '소녀'가 소나기를 맞고 병색이 더 짙어진 것이지만, 이 내용이 <# 73>에 나오지는 않는다.

⑤ <# 73>에서는 '소녀'가 병을 치료할 시기를 놓쳤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원작과 다르게 이 글에서는 '장 씨'가 '윤 초시'네 집을 사고, '윤 초시'가 쓰러지는 장면이 추가된다.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

워 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장 씨’의 말에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을 사고 싶어 했음이 드러난다. ‘장 씨’와 ‘윤 초시’의 대립은 극에 긴장감을 더하며, ‘장 씨’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집을 파는 것에서 ‘윤 초시’네 집안의 몰락을 알 수 있다.

토답토답

실력

쌓기 01 소나기 ②

086~087쪽

소주제 하강 이별

1 ④ 2 ④ 3 ② 4 A: 조약돌, B: 대추

- 1 <S# 90>에 ‘소녀’가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소년’이 도라지를 보며 앞서 ‘소녀’가 꽃뭉음을 안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 2 ‘소녀’가 비 오는 날 ‘소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소나기’는 짧지만 강렬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②, ③ ‘소녀’는 소나기를 맞은 이후로 아팠음에도 비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⑤ ‘소녀’가 ‘소년’에게 호의를 보답하려고 비가 좋아졌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소년’과 소나기를 맞았던 즐거운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가 좋아졌다고 말한 것이다.
- 3 소설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서술하는데, 드라마 대본에서는 지시문으로 표현한다. ⑥은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해당한다.
- 4 <S# 83>에 ‘소년’과 ‘소녀’가 조약돌을 놓으며 소원을 비는 모습이 나타나며, ‘소녀’가 ‘소년’에게 손수건에 곱게 쓴 대추를 건네는 것은 ‘소녀’가 ‘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 준다.

토답토답

실력

쌓기 01 소나기 ③

088~089쪽

소주제 대단원 죽음

1 ⑤ 2 ① 3 ② 4 ④

- 1 <S# 95>에서는 원작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소녀’의 죽음을 알고 충격을 받은 ‘소년’의 반응이 드러난다. 나머지는 원작의 내용과 같다.
- 2 원작과 달리 ‘소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추가함으로써 ‘소녀’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소년’의 절망, 슬픔, 상실감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③은 원작 소설의 결말이 주는 효과이다.
- 3 원정은 대상을 먼 곳에 두고 찍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커다란 나무와 그 나무 아래 작은 ‘소년’이 대비됨으로써 ‘소년’의 외로움이 더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 4 ‘소녀’를 그리워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하얀 조약돌을 꺼내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두는 장면은 ‘소년’이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겨 내며 조금 더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실력

문제

01 소나기

090~091쪽

1 ② 2 ② 3 ② 4 ④ 5 ② 6 ⑤ 7 ⑤

8 ‘소년’의 아픔과 성장을 보여 주려 했다.

- 1 이 글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이를 재구성한 드라마 대본이다.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과 비교하며 읽으면 각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나 가치를 느껴 보는 재미가 있다.  
**오답 풀이** 나. 소설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르. 희곡을 읽는 태도에 해당한다. 이 글은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이다.
- 2 이 글은 원작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원작에 없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 등을 추가하여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더 극적으로 보여 준다.
- 3 뒤에 이어지는 ‘장 씨’의 대사 ‘서울 가서 병 낫겨들랑…….’을 통해 ‘소녀’가 서울에 가서 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4 ‘소년’과 서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나누는 장면에서 비는 소원이므로 이사 간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해 달라는 소원은 적절하지 않다.
- 5 이 글은 드라마 대본으로,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 인물, 사건보다 배경이 더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드라마 대본에서는 번호를 붙여 장면을 구분하며, 각 장면 번호 뒤에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③ (다)의 ‘원경으로 잡아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과 (라)의 ‘동그마니 앉아 있는 소년의 뒷모습 길게 보이며 끝.’과 같이 카메라 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④ 소설에서 인물이 나눈 대화가 드라마 대본에서는 대사로 나타난다.  
 ⑤ (가)에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다는 뜻의 ‘인서트’라는 용어가 쓰인 것처럼 대본에서는 영상 편집을 고려한 전문 용어가 쓰인다.
- 6 ‘인서트’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기법으로, 행복한 ‘소녀’의 모습과 이미 저 버린 도라지꽃을 대비해 ‘소년’의 불길한 예감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 7 ④에서 ‘소년’은 ‘소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⑥에서 ‘소년’은 ‘소녀’의 죽음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다. ⑦에서 ‘소년’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예전에 ‘소녀’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 8 (다)에서는 ‘소녀’의 죽음 이후 ‘소년’이 겪는 아픔을, (라)에서는 이를 극복해 가는 ‘소년’의 성장을 드러낸다.

## 4 수필

### 차근차근 개념 이해

092쪽

1 자유로운 2 ○ 3 ×

### 바로바로 개념 적용 나의 모국어는 침묵

093쪽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글쓴이가 인디언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침묵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처음에 인디언들이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겨 침묵으로 응대한다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를 느끼는 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인디언에게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역설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을 인용하여 침묵의 의미-침묵이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일 수도 있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 핵심 보기

'나'의 경험	그에 따른 깨달음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일	→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한 것임.
인디언 흥재를 내자 과묵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일	→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
인디언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은 일	→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음.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역설 표현)
모국어,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드러냄.

지문 체크 1 × 2 ○ 3 ○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표현 방법 1 ⑤

1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역설 표현을 제목에서부터 사용하여 강한 인상을 주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인디언 부족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생각을 독백체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인디언 축제에 참가한 글쓴이는 인디언들이 침묵으로 자신을 응대하자 어리둥절하였지만, 훗날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③ 이 글은 일상생활 속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쓴 경수필로, 글쓴이 또한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을 친근한 어투로 전달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서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인디언과 비교하면 말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독자 또한 이 글을 읽으며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다.

## 실력 쌓기

### 01 열보다 큰 아홉

094~095쪽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우리 조상들이 아홉이라는 숫자를 왜 사랑해 왔는지 말하면서 꼭 차지 않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게 대접시키고 있다. 역설, 관용 표현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즉, 아홉이 그 부족함 때문에 열보다 큰 수로 여겨진 것처럼, 청소년도 완전하지 않기에 이미 완성된 존재인 어른보다 더 큰 존재이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존재에 대한 불안함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열	아홉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 성공을 한 수	완전에 거의 다른 수,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조금도 여유가 없는 꼭 찬 수, 그다음이 없이 아주 끝나 버린 수	다음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어른과 같은 수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청소년과 같은 수

#### 열보다 큰 아홉 (역설 표현)

#### 글쓴이가 아홉을 청소년과 같다고 한 까닭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사랑받아 왔으며, 청소년은 아홉이라는 숫자처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주제 처음 아홉 가운데 미래 끝 청소년

1 ① 2 ② 3 ④ 4 ④

1 이 글에서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님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일화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②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제목으로 하여 내보임으로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③ 숫자 '열'과 숫자 '아홉'에 담긴 의미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아홉'의 의미를 보여 주기 위해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양장, 구중구절, 구사일생'과 같은 관용어와,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명언을 예로 활용하고 있다.

⑤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의 문답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2 이 글에서 열이란 수는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 성공을 한 수, 조금의 여유도 없는 꼭 찬 수이다. 반면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자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열보다 큰 아홉에 더 의미를 부여하며 아홉이라는 숫자를 사랑해 온 것이다.

3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 조상들이 아홉이라는 숫자에 어떤 뜻을 부여해 왔는지 이야기하면서, 꼭 차지 않은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게 대접시키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아홉이라는 숫자처럼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임을 일깨우고자 이 글을 쓴 것이다.

- 4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집안이 굶주릴 정도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완전에 이른 열이란 수에 비해 완전하지 않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홉이라는 수가 결코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다는 의미와 상통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구절양장(九折羊腸)'은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이르는 말이다.

② '구곡간장(九曲肝腸)'은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구중궁궐(九重宮闕)'은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이다.

⑤ '구사일생(九死一生)'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 2 (나)에서 곱슬머리 소년의 엄마는 아이가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흙을 몸에 묻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 3 글쓴이는 기성세대의 고집이 아이들의 감성을 짓누른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 4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은 아파트 놀이터'는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흙장난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과는 대조적인 장소이다.

- 5 글쓴이는 (다)에서 흙장난을 하는 아이를 야단친 뒤 데려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라)에서 기성세대의 고집이 아이들의 감성을 짓누른다는 생각에 씁쓸해졌다.

토닥토닥

실력

쌍기 02 흙을 밟고 싶다 ①

096~097쪽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흙(자연)을 멀리하는 오늘날의 도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하여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글쓴이는 아파트 정원에서 흙을 갖고 놀던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증조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흙 놀이를 즐겼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흙과 멀어지고 이웃과도 왕래하지 않는 오늘날의 생활을 염려한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의 모태인 흙을 가까이함으로써 삭막하게 메마른 정서를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글쓴이, 글쓴이의 증조할머니	아이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을 만지며 자유롭게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봄.</li> <li>• 생명의 근원인 흙을 통해 자연을 배울 수 있다고 여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봄.</li> <li>• 흙을 몸에 묻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여김.</li> </ul>

관점 비교를 통해 얻는 효과

글쓴이가 흙을 바라보는 관점을 도시에 사는 아이 엄마의 관점과 비교함으로써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인생관,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음.

**소주제** 처음 아이 엄마

1 ② 2 ③ 3 ② 4 ⑤ 5 안타까움, 씁쓸함

- 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해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솔직하게 쓴 수필로, 글쓴이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흙장난을 하고 있는 동네 꼬마들을 보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아이 엄마'로 대표되는 도시인, 기성세대가 흙(자연)을 몸에 묻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동네 꼬마들이 아파트 화단의 흙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이를 야단치는 엄마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등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가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통해 흙과 자연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닥토닥

실력

쌍기 02 흙을 밟고 싶다 ②

098~099쪽

**소주제** 가운데 은덕 끝 흙, 이웃

1 ④ 2 ③ 3 ② 4 ② 5 비판적, 부정적

- 1 글쓴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증조할머니가 지닌 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에 적응하여 흙과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

- 2 '증조할머니'는 흙을 인간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는 생명의 고향으로 여겼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에 적응하지 못한 '나'를 위해 흙장난을 실컷 하도록 두었으며, 땅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 주었다.

**오답 풀이** ①, ④ '증조할머니'가 '나'의 상처에 흙을 뿌려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흙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로써 기운과 영험함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② '증조할머니'가 집안에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지낼 때 흙을 그릇에 담아 뒤뜰에 뿌린 것은 흙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⑤ '증조할머니'는 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에게 베풀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조상이 물려준 땅에 집을 짓고 편안히 사는 것 또한 땅의 은덕이라고 여긴다.

- 3 글쓴이는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한다. 특히, 이 글의 끝부분에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을 가까이함으로써 무디어진 심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 4 ㉠, ㉡, ㉢은 모두 흙을 가까이하는 삶과 관련이 있으므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나, ㉣, ㉤은 현대인들을 삭막하게 만드는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로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다.

- 5 흙을 멀리하고 문명의 이기에 젖어 점점 삭막해지는 요즘 도시 사람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다.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소설가인 글쓴이가 중학교 3학년 시절 도서관에서 박지원의 고전 소설을 읽은 경험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 글쓴이는 학창 시절의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독자에게 읽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고전(박지원의 소설)과 무협지의 비교를 통해 고전의 가치를 깨우쳐 주고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글쓴이의 읽기 경험
특별 활동 시간에 박지원이 쓴 책을 읽음. →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협지와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옴.</li> <li>• 문장이 단단하고 품위 있으며 아름다움.</li> <li>• 정신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li> <li>•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전해짐.</li> <li>• 우리 조상이 쓴 것이라는 뿌듯함을 느낌.</li> </ul>
↓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li> <li>•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줌.</li> <li>• 인간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임.</li> </ul>

소주제 처음 도서관

1 ④ 2 ⑤ 3 ④ 4 ⑤ 5 보약

- 이 글은 소설가인 글쓴이가 중학교 3학년 시절 도서관에서 박지원의 고전 소설을 읽은 경험을 떠올려 진솔하게 쓴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중학교 3학년 때 특별 활동으로 도서관을 선택하여 박지원의 고전을 읽게 되었지만, 특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창 시절의 읽기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학창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으라고 하여 한자로 제목이 써어 있는 책을 골랐다는 내용이 있을 뿐,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글쓴이의 경험담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 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글쓴이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꺼내 든 한자 제목의 고전, 박지원의 소설 읽기를 통해 무협지와는 다른 매력을 맛보았다. 그리고 정신세계가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 글쓴이는 평소 무협지를 즐겨 읽었기 때문에 무협지에서 익숙하게 본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였다.
- (나)에서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구체적인 독서 활동을 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흥미를 잃지 않고 읽기를, 또 학생들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자신의 정신세계가 마치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으며, 제목 또한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글쓴이의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소주제 가운데 고전 소설 끝 책

1 ③ 2 ④ 3 ⑤ 4 ④ 5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글쓴이는 특별 활동 시간에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으며, 고전의 재미를 느꼈다. 또한 고전을 읽으면 자기 피와 살이 된다고 하였고,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재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글쓴이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자신의 읽기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지만 진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② 글쓴이는 읽기가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알고 경험하게 한다면, 정신문화라는 것이 단지 지적 호기심에 한해서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③ 글쓴이는 읽기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뿐, 위로나 평안을 가져다주는 방편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⑤ 읽기가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글쓴이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읽기의 생활화는 일 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을 정해 책을 몰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를 자신의 삶의 일부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⑤는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글쓴이는 학창 시절 특별 활동 시간에 읽었던 책이 자신의 일생을 바꾸었다고 말하며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런 일’은 책이 인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 글쓴이는 특별 활동 도서관 시간을 통해 박지원이 쓴 고전 소설을 접하게 되었고, 이 일로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읽기 경험은 글쓴이가 자신의 진로를 소설가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로 보아 좋은 책은 독자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 II 읽기

### 1 설명하는 글

차근차근  
개념 이해

106쪽

1 비교, 대조 2 인과 3 ×

바른바른  
개념 적용 중학생도 세금을 내나요

107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중학생을 예상 독자로, 세금을 설명 대상으로 설정하여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롯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세금의 종류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학생도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글의 구조	중심 내용	설명 방법
처음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케네디 대통령 일화 소개	인용
가운데 1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과 종류	구분, 정의, 열거, 예시
가운데 2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대조, 인과, 예시
끝	중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지문 체크 1 × 2 인용 3 ×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1 ④

1 이 글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과 종류,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며 중학생도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전하는 글이다. 직접세의 장점을 인과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만, 간접세의 장점을 인과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직접세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직접세의 종류를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간접세의 종류를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라)~(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대조 및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지해가 담긴 음식, 발효 식품 ①

108~109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한 글이다. 처음 부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발효 식품을 예로 들어 흥미를 유발하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이러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글 전체에서 설명하는 대상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		
↓		
주된 설명 방법		
(가): 예시	(나): 예시	(다): 정의, 비교, 대조
(라)~(바): 예시	(사)~(아): 예시	(자)~(차): 예시
↓		
글을 쓴 목적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효용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소주제 처음 발효

1 ⑤ 2 ⑤ 3 ⑤ 4 ④ 5 인과

1 이 글은 발효가 무엇인지, 발효 식품이 왜 우수한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전통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① (다)의 첫 문장에서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바)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김치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발효를 거쳐 만드는 전통 음식 중 김치부터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예로 된장과 간장 또한 설명하고 있다.

2 (가)와 (나)는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처음 부분에서는 대개 설명 대상을 밝히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소개한다. 발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가운데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발효 식품)을 밝히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가)의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나)의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화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 식품의 예를 다양하게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3 (다)에는 발효의 개념을 밝히고 있으며,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ㄱ은 예시, ㄴ은 분석, ㄷ은 정의, ㄹ은 비교·대조의 설명 방법이다.

4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증식하는 젖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생산하는 유용한 물질이다. 젖산균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만들어 낸 젖산은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5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까닭이 젖산의 특성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인과가 쓰인 부분이다.

소주제 가운데 우수성 끝 발전

1 ⑤ 2 ② 3 ③ 4 구체적인 예(사례)를 들어

- (차)에서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하였다.
- 글쓴이는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오답 풀이** ① 발효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③ 이 글의 끝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제안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발효 식품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효용 가치를 강조할 뿐이다.  
 ⑤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식품인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결국 간장과 된장의 우수성을 말하기 위한 것일 뿐 현대인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사)는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자)는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인과, ② 분류, ④ 분석, ⑤ 인용에 관한 설명이다.
- 이 글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인 식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라)~(차)는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 중 김치, 간장, 된장을 설명하는 예시 문단이다. 예시는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지문 설명: 이 글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간지럼을 타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그 특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인간의 진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이 나를 간질이는 것은 간지럼을 타고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간지럼이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끝으로 간지럼 연구가 지닌 의의를 밝히며 간지럼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처음	설명 대상(간지럼) 소개
↓	
가운데 1	가려움과 간지럼을 구분하고 차이를 대조하여 제시함.
가운데 2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인과를 통해 제시함.
가운데 3	간지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대조, 인과를 통해 제시함.
↓	
끝	간지럼 연구의 의의

소주제 처음 간지럼 가운데 1 가려움

1 ⑤ 2 ③ 3 ② 4 ① 5 대조,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며, ⑤는 주장이 담긴 글을 읽을 때에 적합한 읽기 방법이다.
- 글쓴이는 간지럼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정의의 설명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② 간지럼이라는 자극만으로도 사람이 웃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기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가)에 인용의 설명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⑤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나)는 간지러운 느낌을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③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④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풀이하여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⑤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것은 간지럼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며, 이것이 느껴지면 '벽벽'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진다.
- 이 글은 간지럼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다)~(라)에서는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를 대조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알려 주고 있다.

소주제 가운데 2 이유 가운데 3 예측 끝 연구

1 ⑤ 2 ⑤ 3 ③ 4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영국의 뇌 반응 실험과 예측이 가능할 때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로봇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바탕으로, 간지럼이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사)~(아)에서는 내가 나를 간질일 때와 남이 나를 간질일 때의 차이를 대조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였고, 내가 나를 간질일 때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간지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바)에서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혹은 형제간에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과 두 번째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방어 능력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나은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이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ㄷ과 같이 가려움이 간지럼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인간의 진화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 4 ㉠에서는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2 주장하는 글

차근차근  
개념 이해

116쪽

1 근거 2 × 3 ○

바로바로  
개념 적용 변화 마을의 명암

117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벽화 마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며 벽화 마을 조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주민 사생활 침해, 홍물로 변한 일부 조형물, 경제적 이득을 두고 벌어진 주민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마을의 특성과 동떨어진 벽화 마을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핵심 보기**

문제 상황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주민 사생활 침해 • 관리 부족으로 인해 홍물로 변한 일부 조형물 • 경제적 이득을 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의 갈등
원인 분석	'일단 조성하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발상으로 마을을 조성했기 때문



**주장** 마을의 특성과 동떨어진 벽화 마을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

**지문 체크** 1 ○ 2 ○ 3 ×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1 ②

- 1 글쓴이는 벽화 마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벽화 마을의 조성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결만 번지르르한 벽화 마을 조성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④ 벽화 마을 조성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에 자신의 생각이나 근거를 밝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통독  
실력

쓰기 01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①

118~119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을 다양한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착한 소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는 낯선 현상을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착한 소비를 기업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린 '투표용지'에 비유하여 착한 소비의 실천을 통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핵심 보기**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명의 사람들이 달콤 창고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눈.</li> <li>• 경제가 나빠져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임.</li> <li>• 일대일 기부 방식을 도입한 사진관에 손님이 늘어남.</li> <li>•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계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li> </ul>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따른 반성과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착한 소비의 중요성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 → 점층적 표현을 통해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를 강조함.

소주제 서론 나누려는

1 ④ 2 ① 3 ⑤ 4 달콤 창고, (세계, 국내) 공정 무역 매출액

- 1 (라)의 '어떻게 일면식도 ~ 건넬 수 있을까?', (마)의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 나누려고 할까?'에 의문형 문장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은 착한 소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라는 제목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착한 소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며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글에 포함된 매체 자료의 출처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글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

⑤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 <자료 1>은 체감 경제 고통 지수, 즉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달콤 창고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을 위하는 이타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낮선 흐름'이라 한 것이다.

- 4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식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공정 무역 매출액이 늘어난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토익토크

실력

쌓기 01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2 120~121쪽

소주제 본론 1 착한 소비 본론 2 기업 본론 3 이타심

결론 투표용지

1 ④ 2 ⑤ 3 ⑤ 4 ③

- 1 글쓴이는 (자)에서 기업이 착한 가치를 내세우며 경영을 하는 것이 이미지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차)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용어를 통해 그동안 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 왔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② (마)~(사)에서 수치가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그중 특히 (사)에서 착한 소비에 참여하는 가계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제목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착한 소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상적으로 전달했다.  
⑤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면 표현 대상을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어 독자가 그 대상을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다. (타)에서 점층적 표현을 통해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강조했다.

- 2 ①~④는 모두 이타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착한 소비의 예로 볼 수 있다. ⑤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에 해당한다.  
3 <자료 4>는 그래프이고, <보기>의 자료는 표이다. <보기>의 표는 연도별 전국 기부 가게의 수와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래프로 제시할 때에 비해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반면 <자료 4>와 같이 그래프로 제시하면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4 착한 소비를 빗댄 대상인 '투표용지'는 개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착한 소비가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임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토익토크

실력

쌓기 02 느림의 가치를 재발견하자 122~123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제시하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느림'의 삶을 실천해 볼 것을 주장하는 글이다. '빠름'과 대조되는 '느림'은 속도에 빠져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하며, 우리를 보다 인간답게 만든다. 또한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인간적인 삶뿐 아니라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 핵심 보기

빨리빨리의 문화		'느림'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함.</li> <li>• 부실 공사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됨.</li> <li>•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음.</li> <li>•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함.</li> <li>•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 줌.</li> <li>•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함.</li> <li>• 개인의 인간적인 삶과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함.</li> </ul>
↓		
글쓴이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느림'의 가치를 인식하고, '느림'의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함.		

소주제 서론 빨리빨리 본론 느림 결론 실천

1 ④ 2 ③ 3 ② 4 빨리빨리의 문화

- 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느림'을 실천하는 삶과 그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논리적으로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느림'의 가치와 필요성 중 하나가 지구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함이었을 뿐, 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② '느림'과 '빠름'을 대조하여 '느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을 뿐, 그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다)에 느리게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글쓴이의 '느림'의 실천 사례나 그로 인한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삶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변화가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2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서론에 제시되어 있다. '느림'은 빠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도에 빠져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자 인간적인 삶을 위해 또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 3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은 느리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을 빨리하면 시간이 남고, 그 남은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된 독자가 조언할 수 있는 말은 일을 빨리 마치고 여유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의 문화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사는 삶, '느림'의 삶을 누려 보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바)에 제시된 내용이다.  
③, ④ 이 글의 본론 마지막 문단에 해당하는 (마)에 제시된 내용이다.

- 4 글쓴이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로 인해 부실 공사로 인한 건축물 붕괴,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또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이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 III 듣기·말하기

#### 1 대화

차근차근  
개념 이해

126~127쪽

1 ○ 2 ○ 3 목적 4 공감적 5 × 6 ○

바로바로  
개념 적용

아빠와 아들의 대화 / 달리는 차은

128~129쪽

##### ◆ 아빠와 아들의 대화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열두 살 소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로버트'는 이웃 아저씨에게 새끼 돼지를 받아 정성스레 돌보지만, '아버지'가 사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돼지를 잡아 버린다. '로버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돼지를 잡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른이 되어 간다. 교과서 수록 부분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대해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과정 즉, 두 인물의 협력적인 듣기·말하기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 • 핵심 보기

대화 전	대화 중		대화 후
	'아빠'	'아들'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 '아빠'와 '아들'이 의견 차이를 보임.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예를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설명해 줌.	자신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동의하는 부분은 맞장구를 친.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 '아빠'와 '아들'의 의견이 일치됨.

##### ◆ 달리는 차은

• **작품 설명:** 이 시나리오는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 '차은'은 이를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출신임을 알게 된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는다. 이에 가충을 한 '차은'을 '엄마'가 찾아내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둘의 갈등이 해소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차은'과 '엄마'가 갈등을 겪는 부분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올바른 듣기·말하기 태도를 생각해 보게 한다.

##### • 핵심 보기

대화의 문제점	'차은'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에만 집중해 '엄마'에게 화를 냄.
	'엄마'	'차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화 이야기만 함.
↓		
해결 방법	•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만 바라지 말고,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 • 상대의 상황과 심정을 배려하여 말하여야 함.	

지문 체크 1 ○ 2 × 3 × 4 운동화 5 × 6 ×

협력적 듣기·말하기 태도의 중요성 1 ④

협력적 듣기·말하기의 방법 2 ⑤

- 1 아빠는 울새와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고 있다.

- 2 이 대화에서는 각자 상대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능력단

실력

쌓기 01 '황희 정승'의 일화/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130~131쪽

##### ◆ '황희 정승'의 일화

• **지문 설명:** 이 만화는 조선 세종 때의 명신인 '황희 정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 상대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는 '황희 정승'의 인품이 잘 드러난다. 제사를 지낼 것인지 여부를 묻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대답을 해 준 '황희 정승'의 모습을 통해, 공감적 듣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 핵심 보기

'황희 정승'이,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황희 정승'이, 제사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답함.	제사를 안 지내야 한다고 답함.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그에 맞게 대답을 해 줌.

##### ◆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 **지문 설명:** 좋아하는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한 '민정'과 '민정'의 고민을 들어 주려는 '선생님'의 대화이다. 상대의 고민을 공감하며 들어 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 핵심 보기

	방법	예
소극적 들어 주기	대화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하게 맞장구치기	• (민정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 응, 계속 이야기해 봐.
적극적 들어 주기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기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

1 ② 2 ③ 3 ④ 4 ㉠, ㉡

- 1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상대가 자신의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감적 듣기이다.
- 3 '황희 정승'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했기에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각각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상대에 따라 다르게 답한 것이다.
- 4 ㉠처럼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거나, ㉡처럼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감적 듣기 방법 중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처럼 상대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거나, ㉠처럼 상대가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감적 듣기 방법 중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2 연설/발표

차근차근  
개념 이해

132쪽

1 연설 2 × 3 ○

바로바로  
개념 적용

세상의 모든 어버이께

133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당시 12세였던 세번 컬리스 스즈키가 발표한 연설문이다. 연설자가 어린아이임을 강조하며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연설 대상으로 정하여, 어버이의 입장에서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 있다.

· **핵심 보기**

말하기 태도	듣기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설의 목적, 연설 대상, 장소와 상황 등을 고려해 말하는 이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냄.</li> <li>듣는 이의 지식과 수준, 감정과 태도를 고려해 듣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를 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 등을 활용해 말하는 이의 의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파악함.</li> <li>말하는 이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임.</li> <li>궁금한 점은 메모해 두고 연설 후 질문함.</li> </ul>

지문 체크 1 어른들 2 × 3 ×

공적인 상황에서의 듣기·말하기 1 ①

- 1 연설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로, 특정 주제에 대해 연설자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토닥토닥

실력 쌓기 01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①

134~135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 모둠에서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발표문이다. 기아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적절하게 인용하였다.

· **핵심 보기**

활용한 자료	핵심 정보	그 효과
세계 기아 실태 지도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여,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냄.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여, 이어질 내용에 집중하게 함.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 사진	사막화에 따른 문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사막화 현상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 함.
만 원의 기적 캠페인 영상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	듣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함.

소주제 도입 동기 전개1 기아

1 ④ 2 ④ 3 ② 4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책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을 권유하고자 하는 것이지, 책을 읽은 감상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 ㉠은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 자료로, 세계 각 지역의 기아 인구를 연 단위로 비교하는 내용은 도출할 수 없다.
  -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높아지는 그래프(ㄹ)를 통해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량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ㄱ), 그럼에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ㄷ).
- 오답 풀이  
ㄴ. 식품 충분성 지수가 오히려 최근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식량이 부족한 것을 최근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꼽기는 어렵다.  
ㄴ.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국가별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토닥토닥

실력 쌓기 01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②

136~137쪽

소주제 전개2 원인 전개3 해결 정리 요약정리

1 ④ 2 ②, ④ 3 ⑤ 4 ㉠: 이해를 도움, ㉡: 동참하도록 유도함

- (차)에서 기부에 동참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아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이 발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방법은 듣는 이가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
- 이 발표에서는 질문, 사례, 인용구,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해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듣는 이가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다양한 비유는 사용하지 않았다.
- (사)의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 사진은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막화 현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의 만 원의 기적 캠페인 영상은 청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 3 방송 보도/강연

차근차근  
개념 이해

138쪽

1 ○ 2 강연 3 매체 자료

바로바로  
개념 적용

목표 퀴즈 '거북목 증후군' 질환 급증

139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스마트폰 사용 급증이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텔레비전 뉴스이다.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핵심 보기

활용한 매체 자료	그 효과
스마트폰 보급률과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이 늘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줌.

지문 체크 1 ○ 2 × 3 스트레칭

방송 보도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 1 ④

-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거북목 증후군 환자의 수도 늘었음을 전하는 뉴스이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와 거북목 증후군의 상관관계를 찾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만약 지진이 일어났다면? ①

140~141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강연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는 내용의 강연문이다. 강연자는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영화 포스터, 동영상, 사진, 그림, 표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듣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 핵심 보기

활용한 매체 자료	그 효과
영화 「샌 안드레아스」 포스터	• 강연 주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함. •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하게 함.
지진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 강연 중에 제시되어 분위기를 환기함. • 지진 발생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함.
네팔과 일본의 지진 피해 사진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전달함.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	•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 • '불의 고리'가 가리키는 바를 쉽게 이해하게 함.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안내한 표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법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함.

소주제 처음 자기소개

1 ③ 2 ③ 3 ② 4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

- 듣는 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의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여러분 ~ ○ ○ ○ 소방서에 근무하는 △△△입니다.'에서 강연자와 듣는 이, 인사 말, 자기소개가 나타난다.

④ (가)의 '화면을 볼까요? ~ 포스터인데요'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다)의 '혹시 2015년에 네팔에서 ~ 알 수 있지요.'에서 듣는 이가 알 만한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나)에서 활용한 동영상 자료는 지진의 발생 과정 및 원인을 실감 나게 보여 줌으로써 듣는 이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나라의 사진을 사례로 보여 주어, 듣는 이가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 (가)에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을 알려 주는 것이 강연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만약 지진이 일어났다면? ②

142~143쪽

소주제 가운데 대처법 끝 감사

1 ① 2 ① 3 ④ 4 글로 읽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매체 자료는 강연 중 적절한 부분에 사용해야지, 자료의 중요도를 따져 그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 (라)에서 활용한 매체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ㄱ), '불의 고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지역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뒤이은 진술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ㄹ. 한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바)는 강연 내용을 마무리하며 당부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② '고맙습니다.'

③ '오늘 강연 내용을 ~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지진이 무엇인지 ~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 (마)에서 사용한 매체 자료는 표이고, <보기>의 매체 자료는 그림이다. (마)의 표는 장소에 따른 대처 방법을 비교해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보기>의 그림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로 읽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V 쓰기

### 1 설명하는 글 쓰기

차근차근  
개념 이해

146쪽

1 독자 2 × 3 특성, 방법

토달토달  
실력 쌓기

147~148쪽

1 ② 2 ⑤ 3 ① 4 줄다리기 관련 여러 정보를 알리기(설명하기) 위해서 5 ③ 6 ③ 7 ④ 8 ⑤

- ②는 '열거'의 설명 방법이 어울린다. '구분'은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나)에는 대상의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다)에는 줄다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나열한 후에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오답 풀이 ㄱ. 분석 ㄴ. 예시 ㄷ. 비교

-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결말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으며, 줄다리의 줄을 지네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과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줄다리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알려 주려는 것으로 보아, 줄다리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글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라도, 내용 선정 과정을 거치며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만 선택한다.
-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찾아 쓰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므로, 글 속에서 중복된 설명 방법이 쓰일 수 있다.
- 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읽는 이의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㉔에 들어갈 적절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오답 풀이 ① ㉑: 대상의 개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인 '정의'가 적절하다.  
② ㉑: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구조를 살피는 설명 방법인 '분석'이 적절하다.  
③ ㉑: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가 적절하다.  
⑤ ㉑: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가 적절하다.

- 귀의 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㉑와 마찬가지로 '외이', '중이', '내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다듬었다.

## 2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 쓰기

차근차근  
개념 이해

149쪽

1 속담, 명언 2 × 3 ○

토달토달  
실력 쌓기

150~152쪽

### ◆ 아끼다가 똥 댈지라도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학교 선생님인 글쓴이가 학생들과 있었던 정겨운 일상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 글쓴이는 자기 아이에게 들은 "아끼다 똥 된다."라는 속담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달리, 요즘 아이들이 무언가를 아껴 쓸 만큼 소중하게 여겨 본 적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아끼다가 똥 댈지라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 핵심 보기

이 글에 쓰인 다양한 표현	관용 표현	• 배짱을 쥐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몹시 바빠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 • 침을 삼킨다: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
	속담	• 아끼다 똥 된다: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 ③ 2 ② 3 ① 4 등잔 밑이 어둡다 5 ③  
6 ③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침을 삼킨다 / 침을 흘린다

- ㉑은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하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 (가)에 쓰인 표현들은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조상들의 지혜, 교훈이나 풍자가 담긴 쉽고 짧은 말을 가리키는 속담에 해당한다. 속담은 교훈이나 풍자를 위해 어떤 사실을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의미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돌려 전달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속담을 글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고 딱딱한 느낌을 줄일 수 있으며, 읽는 이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을 쓸 수 있다.  
③ 속담을 활용하면 상황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④ 속담은 그것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을 거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어져 왔다. 따라서 속담은 많은 사람의 경험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친숙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속담은 글에 참신함과 재미를 더하여 읽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는 글자를 하나도 모를 정도로 아주 무식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㉑의 상황에 맞는 속담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이다.

- 4 휴대 전화를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뜻의 '등잔 밑이 어둡다'가 적절하다.
- 5 (가)에 제시된 글은 격언과 명언에 해당한다. 격언은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며, 명언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다. 격언과 명언 모두 삶의 올바른 이치,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 ③은 속담에 대한 설명이다.
- 6 'ㄱ, ㅇ'은 '도전, 노력', 'ㄷ, ㅁ'은 '시간', 'ㄹ, ㅂ'은 '우정', 'ㄴ, ㅅ'은 '사랑'과 관련된 격언 또는 명언이다. ㉠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며 헛되이 보내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의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과 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도전과 노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 7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이다.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고, '나 몰라라 하다'는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을 쓰면 상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준하: ⑥는 관용 표현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처럼 굳어져 하나의 낱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형준: ③은 원래의 뜻대로 쓰는 표현이지만, ⑥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8 ④는 우리 팀이 공을 넣지 못하여 응원단이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므로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라는 의미의 '발을 구르다'가 어울린다. '발을 디디다'는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① 손을 내밀다: 친하려고 나서다.  
② 눈을 속이다: 잠시 수단을 써서 보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하다.  
③ 김치국부터 마신다: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여기고 행동한다.  
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
- 9 이 글에서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훌륭한 말인 '명언'의 인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속담과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쓴 글이다.
- 10 읽는 이에게 친숙한 속담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면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속담을 재구성한 제목과 속담의 문제점은 전혀 관련이 없다.  
② 속담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③ 속담을 활용하면 설명하기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⑤ 이 글의 제목은 속담을 재구성한 표현으로, 이 글이 속담의 원래 뜻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12 (나)는 무엇이든 조금은 부족했을 때 그것을 하게 여기게 된다는 내용이다. ㉠의 앞뒤를 고려하면 음식을 부족하게 가져갔을 때 그 음식을 더, 몹시 먹고 싶어 한다는 뜻의 '침을 삼키다'라는 관용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 고쳐쓰기

최근  
개념 이해

153쪽

1 × 2 문장 3 재구성, 대치

문단  
실력 쌓기

154~155쪽

1 ④ 2 ③ 3 ② 4 '당시 나는 동생과 한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를 삭제한다. 5 ③ 6 ④ 7 ① 8 읽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1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문단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나)에서는 병아리와의 첫 만남을, (다)에서는 마당에서 지내는 민들레를 방 안으로 데리고 온 일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병아리를 처음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 준 이야기인 <보기>는 (나)와 (다)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
- 3 병아리가 매력적이어서 병아리를 한참이나 바라본 것이므로 '그래서'를 써야 한다.
- 4 '나는 비가 오면 ~ 데리고 올 것이다.'처럼 시제에 어긋난 표현을 고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것이다. (다)의 마지막 문장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5 고쳐쓰기는 글을 쓰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다.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나)에서 '과자 회사가 어찌나 고맙던지.'라는 문장은 과자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황당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 7 ㉠은 '적은 지가'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은지가'로 고쳐야 하며 이는 낱말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③은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④는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⑤는 글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8 '과자 양이 적어 실망한 일'보다 '공기 반 과자 반'이라는 제목이 독자의 흥미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 V 문법

### 1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차근차근  
개념 이해

158~159쪽

- 1 표준어    2 ×    3 ×    4 ○    5 올, 오단, 오슬  
6 날리리    7 ○    8 ○    9 아니, 아니하다    10 되는  
11 됐습니다

기초 토크

#### 학습 활동 문제

160~161쪽

- 1 (1) [박], [안], [남], [박], [삽], [밤], [남], [남], [달], [강], [남], [남  
깨], [날따], [부억], [하은], [술] (2) ㄱ, ㄷ, ㄹ, ㅂ  
2 (1) [입]-㉠-㉡ (2) [이플]-㉢-㉣ (3) [이바래]-㉤-㉥  
(4) [입싸귀]-㉦-㉧ 3 (1) 우리에, 우리의 / 희망 (2) 회의  
에, 회의의, 회이에, 회의의 4 (1) [나는 기를 건따가 본 꼬치/  
꼬체 이르미 궁금한따] (2) 나는, 본 / 길을, 건다가,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 (3) 의사소통 5 (1) 아니 (2) 아니하 6 (1) 돼요  
(2) 보아야, 봐야 (3) 백요 (4) 될

시험에는 이렇게

- 1 ④    2 ②    3 ④    4 ③    5 ④  
6 '뒀어' → '되었어' 또는 '됐어'

- 1 땃[단], 잣[잔], 낮[남], 삽[삽], 하을[하은]으로 발음하므로 받  
침소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삽[삽]'이다.  
2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올 경우에는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으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읽으로'는 [이프로]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웃은'은 [오슨]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담임'은 [다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웃 안에'는 [오다네]로 발음해야 한다.  
⑤ '무릎을'은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3 단어의 첫음절인 '의'는 [의]로만 발음하고, 첫음절 이외의 '의'  
는 [의] 또는 [이]로 발음한다.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④  
[민주주의의 이익]는 단어의 첫음절인 '의'를 [이]로 발음하였  
으므로 옳바르지 못하다.  
4 '낱기를'은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의 '낱기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5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나는 이제 자전거를 타지 않  
겠다.'는 옳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다. '잠이 안 와서 책  
을 읽었다.', '아침밥을 안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써야 한다.  
②, ③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로 동사나 형용사로 쓰인다.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야.',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라고 써야 한다.

- 6 '뒀어'는 '되-' 뒤에 '-어'가 붙은 '되었어'의 줄임 표현이기 때  
문에 '시냇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어.' 또는 '시냇물이 얼어  
서 얼음이 뒀어.'라고 써야 맞는 표기이다.

능력 토크

#### 실력 쌓기

162~165쪽

- 1 ④    2 ②    3 ②    4 ㉠: 널, ㉡: 넙쭈칸    5 ③  
6 ⑤    7 ④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읽지    13 ②    14 ③    15 [무니]    16 ④  
17 ⑤    18 ②    19 다쳐서 → 닫혀서    20 ③    21 ②  
22 ④    23 낱으세요, 낮으세요 → 나으세요    24 ②    25 ③  
26 ①    27 ④    28 ③

- 1 '빛'과 '빋'의 발음은 모두 [빈]으로 똑같지만 뒤에 '이, 을' 등  
과 같은 모음이 올 때에는 발음이 달라진다. 대화에서 남학생  
이 '빛을'을 [비출]이 아닌 [비슬]로 발음하여 여학생과의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학생이 발음한 [비  
슬]은 '빛을'의 옳바른 발음이다.  
2 '웃'은 이어지는 말이 없을 경우나 이어지는 말이 자음으로 시  
작할 때에는, 받침 'ㅅ'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운]으로 발음한  
다(㉠, ㉡). 뒤에 오는 말이 모음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ㅅ'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웃이[오시]', '웃을[오슬]'처럼 받침 뒤에 모음  
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야 제 소  
릿값으로 발음될 수 있다.  
3 접미사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받침 'ㅅ'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따프시]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결을'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  
미가 없는 조사 '을'이 이어지므로 받침 '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겨틀]로 발음해야 한다.  
③ '값을'은 받침 'ㅈ'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  
미를 지니지 않으므로 겹받침이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로 나뉘  
다. 따라서 '값을'은 [갑슬]이 되었다가 된소리화가 일어나서 [갑썰]로  
발음된다.  
④ '읽고'는 받침 'ㄱ' 뒤에 'ㄱ'이 결합하여 [크]으로 발음되므로 [일  
코]가 된다.  
⑤ '발을'은 '결을'과 같은 이유로 [바틀]이라고 발음하지만, '발이'는  
[바치]로 발음한다. 우리말에서 앞말의 받침이 'ㄷ' 또는 'ㅌ'이고, 뒷말  
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ㄷ'과 'ㅌ'을  
각각 'ㅈ'과 'ㅊ'으로 바꾸어 발음하기 때문에 '발이'는 [바치]로 발음한  
다.  
4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넙다'는 [넙따]로 발음한다. 다만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  
'넙'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한다. '넙적하다[넙찌카  
다],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등이 그 예이  
다.

## 34 정답과 해설

15 '무늬'에서 '니'는 자음 'ㄴ'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이중 모음이므로 [니]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무늬'의 발음은 [무니]가 맞다.

16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모음 '니'는 [니]로 발음해야 하므로 '흰'은 [힌]으로 발음해야 한다.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사'는 [의사]로, '의상'은 [의상]으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니]나 [이]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 '의'는 [니]나 [네]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주의'는 [주의/주이]로, '친구의'는 [친구의/친구에]로 발음한다.

17 우리말에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와 일치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즉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18 '달갈말이'의 바른 표기는 '달갈말이'이므로 '달갈마리'로 고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19 '다쳐서'는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이므로, 문구점의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닫혀서'라고 표기해야 한다.

20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는 줄여서 '돼'로 쓴다. 따라서 '뒀습니다'는 틀린 표기이며, '되었습니다' 혹은 이를 줄인 형태인 '뒀습니다'로 써야 맞는 표기이다.

21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므로, '않 좋아하는데'는 '안 좋아하는데'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덜렁거리다'와 '덜렁대다' 모두 표준어이다.  
③ '왜 그런지 모르게'의 뜻을 가진 말은 '왓지'가 맞다. '왓'은 '어찌된' 또는 '어떠한'의 뜻이다.  
④ '헛디더'의 발음은 [헛디더]가 맞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⑤ '웃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는 의미는 '다리다'가 맞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달이다'이다.

22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썼'으로 될 때에는 준대로 적는다. '썼다'의 준말 표기는 '뒀다'이다.

23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므로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인 '낫다'를 써야 한다.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어간 끝에 'ㅅ' 받침을 가진 용언 중 어미의 모음 앞에서 '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낫다'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낫다'는 '나아, 나오니, 나왔다'와 같이 활용하므로, '낫으세요'가 아니라 '나으세요'라고 표기해야 한다.

#### 보충 자료

##### | '낫다'와 '낳다'의 표기가 헷갈리는 이유 |

'낫다'와 '낳다'에 '-아, -으면'가 붙을 때 '낫다'는 'ㅅ'이 탈락하면서 소리대로 '나아, 나오면'이라고 적고, '낳다'는 'ㅎ'을 밝혀 '낳아, 낳으면'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낳아, 낳으면'을 읽을 때는 [나아], [나오면]이라고 발음한다. 이처럼 '낫다'와 '낳다'가 활용할 때 발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표기의 혼동이 생기는 것이다.

24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을 뜻하는 부사 '이따금'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풀잎'은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교체되어 [풀입], 고유어 사이에 'ㄴ'음이 들어가 [풀닙], 앞 받침의 'ㄹ' 소리를 닮아가는 현상에 따라 [풀립]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밤낮'은 받침 'ㅈ'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어 [밤남]으로 발음되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④ '별빛'은 받침 'ㅈ'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고 된소리화가 적용되어 [별뽕]으로 발음되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⑤ '납작하더니'는 받침 'ㅂ' 뒤에 이어지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받침 'ㄱ'과 이어지는 'ㅎ' 소리가 합쳐져 [납짜카더니]로 발음되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25 '부치다'는 '인편이나 체신, 운송 수단을 통해 보내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국으로 짐을 부치다'가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물체와 물체가 서로 바짝 가까이하게 하다'의 뜻으로 '책상을 벽에 붙이다'가 옳바르다.  
② '맛달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가 옳바르다.  
④ '이름이 생기게 하다'의 뜻으로 '친구에게 별명을 붙이다'가 옳바르다.  
⑤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게 하다'의 뜻으로 '피아노 연주에 취미를 붙이다'가 옳바르다.

26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이 어찌 되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떻다'를 부사형으로 바꾼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그러므로 '너 어떻게 학교에 왔어?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는 바르게 표기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의미의 표현은 '바래다'이고,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는 의미의 표현은 '바라다'이다.  
③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게 하다'는 의미의 표현은 '맞히다'이고,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는 의미의 표현은 '맞추다'이다.  
④ '지식이나 기능, 이치 등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는 의미의 표현은 '가르치다'이고,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는 의미의 표현은 '가리키다'이다.  
⑤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반드시'이고,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등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의미의 표현은 '반듯하다'이다.

27 오이소박이는 오이를 갈라 소를 박은 김치로 '박다'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이'가 붙는다.

**오답 풀이** ① 조사 '의'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관형사 구실을 하도록 할 때 쓰고, 조사 '에'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 쓴다.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좋기로'가 옳바른 표기이다.  
②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얼큰하게 갖은양념을 하여 끓인 국을 이르는 말은 '육개장'이다.  
③ 떡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바득하게 잡아 고기·채소·두부 따위를 넣고, 간장·된장·고추장·젓국 따위를 쳐서 갖은양념을 하여 끓인 반찬을 이르는 말은 '찌개'이다.  
⑤ '건들다'는 '건드리다'의 준말이므로 '건들지도' 또는 '건드리지도'가 옳바른 표현이다.

보충 자료

‘-박이’와 ‘-배기’

점이 박혀 있어 ‘점박이’, 금니를 박았다는 뜻의 ‘금니박이’, 차돌처럼 단단한 것이 박혀 있다는 뜻의 ‘차돌박이’ 등은 ‘박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모두 ‘-박이’가 된다. 이와 달리 ‘한 살배기’, ‘두 살배기’에서처럼 어린아이의 나이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를 뜻할 때에는 ‘-박이’가 아니라 ‘-배기’가 맞다.

- 28 ‘아를 나야 줄 꺼시고’에서 ‘나야’는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ㅎ’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나야]로 발음하였으나, 표기할 때는 ‘알을 낳아 줄 것이 고’로 해야 한다.

문법 정리

166쪽

- ① ㄷ ② 집 ③ 날따 ④ | ⑤ ㄹ ⑥ 지퍼

2 담화의 개념과 특성

개념 이해

167~168쪽

- 1 담화 2 맥락 3 상황 4 × 5 ○ 6 ○ 7 ○  
8 × 9 문화 10 ○ 11 통일 12 ○

기본 토큰

학습 활동 문제

169쪽

1 (1) 지영이와 ○○ 복지관 담당자 (2)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예약함. (3) 시간: 학교를 마친 후 집에 가는 길(하굣길) / 공간: ○○ 복지관 2 (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나): 떠들거나 소음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다): 장애인인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비워 두자. 3 세대, 문화, 지역

시험에는 이렇게 1 ④ 2 ③ 3 ③

- 담화의 구성 요소는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맥락(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축구를 하자고 제안하는 말에 발을 다쳤다고 대답한 상황이므로, ‘발을 다쳤어.’는 축구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담화는 손자가 말한 ‘킹왕짱’이라는 표현을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할머니와 손자의 세대가 달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실력 쌓기

170~172쪽

- 1 ③ 2 ② 3 ④ 4 ⑤ 5 ⑤ 6 ④ 7 ④  
8 ⑤ 9 ④ 10 지우개 좀 빌려줄래? 11 ② 12 ①  
13 ④ 14 ④ 15 ④

- 1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풀이

-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하고, 이 발화나 발화가 연속된 덩어리를 담화라고 한다.
-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은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

- 2 담화 상황으로 볼 때 10시쯤 보건실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그리고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말하는 이인 보건 선생님이 듣는 이인 남학생에게 아픈 데가 어디인지 묻고자 하는 의도로 한 말이다.

- 3 담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맥락 등이 있으며, 이 요소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가)와 (나)의 담화 상황으로 볼 때 담화 참여자들이 속한 문화로 인해 담화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 4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어떤 대상과 관련한 대화인지 상황 맥락을 알지 못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남매가 현관에서 우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오답 풀이

- 어떤 물건을 쓰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통일성은 갖추고 있다.
- 담화의 참여자는 오빠와 동생임이 드러난다.
- 오빠의 발화 중 ‘그냥 나랑 같이 쓸까?’는 어떤 물건(우산)을 같이 쓰면 어떻겠는지 동생에게 물어보려는 의도로 한 말이고,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 우산이 작으므로 같이 쓰기보다는 각자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도로 한 말이다.
- 오빠와 동생은 신조어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5 위층 사람과 아래층 사람은 모두 층간 소음에 대해 각자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서로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보충 자료

소설의 뒷부분에서 알 수 있는 맥락의 중요성

결국 아래층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위층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6 (가)에서 식당 주인은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고자 하는 상황이다.

7 ‘복스럽다’는 말을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담화이다. 할머니는 애정을 담아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풍뎡하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은 아니다.

8 담화 상황이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잘한다.”라고 한 것이라면 질책의 의미인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이와 같은 담화 상황에서 “잘한다.”라고 한 것은 반어적 의미로 질책이나 비난하는 의도이다.

③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친구에게 “잘한다.”라고 한 것은 비난이 아닌 칭찬의 의도가 적절하다.

9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은 이런 언어문화를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종교 등이 달라 발생하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담화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0 상황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희연이 지우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는 말이므로 ‘지우개 있어?’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느냐는 부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1 승재는 지우개가 필요해서 ‘지우개 있어?’라고 물어본 희연의 의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12 고모는 ‘짜게’라는 말을 ‘빨리, 서둘러서’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은 ‘값이 저렴하게’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이는 고모가 사용한 지역 방언의 의미를 주연이 잘못 이해한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화이다.

13 이 담화에서는 손자의 말을 할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손자 세대가 사용하는 ‘공구(공동으로 구매)’, ‘만찜남(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멋있는 남자)’과 같은 줄임말을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4 도서관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책을 깨끗이 읽으세요.’나 ‘책을 찢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알고 그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한글의 창제 원리

차근차근 개념 이해

174~175쪽

- 1 한자 2 ○ 3 자주 4 발음 5 ○ 6 가획  
7 × 8 ㅏ, ㅑ 9 재출자 10 ○ 11 모아쓰기  
12 ○

기초 토크

#### 학습 활동 문제

176~177쪽

- 1 ㄱ-㉠, ㄴ-㉡, ㄷ-㉢ 2 ㄴ, 입/입술, ㅁ,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3 (1) ㅌ, ㅊ (2) 가획의 원리(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 4 (1) 하늘, ㅡ, 사람 (2) 합성의 원리(모음의 기본자끼리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5 (1) 함께하는 우리 (2) 단어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6 (1) 한글 모음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지만, 알파벳 모음은 단어에 따라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2) 소리가 비슷함. / 모양이 각기 다름.

시험에는 이렇게

- 1 ① 2 ② 3 ② 4 ③ 5 모아쓰기 6 ①

1 한글의 창제 정신 중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한자가 아닌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자주 정신에 해당한다.

2 ‘ㄴ’은 혀소리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3 ‘ㅁ’은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이다.

4 ‘ㅏ, ㅑ, ㅓ, ㅕ’는 기본자 ‘ㅣ, ㅡ’와 ‘ㅛ’를 한 번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고, ‘ㅗ’는 기본자로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5 한글은 소리 낼 때를 고려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아쓰기를 하면 적은 수의 글자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읽기가 편하며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6 한글의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 외에도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즉, 한글은 발음의 특성까지도 글자의 모양에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의 모양이다.

**오답 풀이**

②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은 영어 알파벳의 특성이다. 또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음자가 아닌 모음자에서 드러나는 한글의 특성이다.

③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④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 문법 정리

173쪽

- ① 문장 ② 담화 ③ 맥락 ④ 의미 ⑤ 어문  
⑥ 문화

⑤ 한글이 다른 문자를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라는 특성은 한글의 창제 정신 중 자주 정신에 대한 설명이다.

특단토막

실력 쌓기

178~181쪽

1 ③	2 ③	3 애민 정신	4 ③	5 ②	6 ④
7 ③	8 ④	9 ①	10 ①, ⑤	11 ④	12 ③
13 ㉠: ㅏ, ㉡: ㅑ, ㉢: ㅣ	14 ⑤	15 ②	16 ③		
17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를 낸다.	18 ③	19 ①			
20 ①	21 ④	22 ⑤	23 ②		

1 '伐木禁止'라고 쓰인 한자를 읽지 못해 벌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통해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글은 세종 대왕이 기존의 문자를 응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낸 독창적인 문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한글 창제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 차이를 인식한 자주 정신, ㉠과 같이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애민 정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실용 정신이 담겨 있다.

4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고 했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한글의 창제 원리가 나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한글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세계 유일의 소리글자라고 하였다. 한글이 유일한 상형 문자는 아니다.

② 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다.

④ 정음 28글자 중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만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⑤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만든 글자는 자음자이며, 모음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보충 자료

| 훈민정음해례본 |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의 한문 해설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본문(예의)

- 어제 서문: 창제 배경과 목적
- 예의: 정음 28자의 모양, 발음과 사용법

(2) 해례

- 제자해: 제자 원리, 자모음 체계 등에 대한 설명
- 초성해 / 중성해 / 종성해에 대한 설명
- 합자해: 초성, 중성, 종성 자가 합해진 표기
- 용자해: 글자의 실제 용례

(3) 정인지 서문: 창제 목적과 특징, 창제자, 창제 시기 등

5 'ㅇ'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오답 풀이** ① 'ㅎ'은 자음자 'ㅎ'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다.

③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의 기본자이다.

④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의 기본자이다.

⑤ 'ㅎ'은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6 'ㅅ[치음(齒音)]'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오답 풀이** 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ㄱ'이다.

②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ㄴ'이다.

③ 입 모양을 본뜬 글자는 'ㅁ'이다.

⑤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글자는 'ㅇ'이다.

7 한글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거나 기본자끼리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외워야 할 글자 수가 적다. 그리고 'ㄱ-ㅋ'처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문자는 그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배우기가 쉽다.

8 가획의 원리에 의하면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ㄱ-ㆁ'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오답 풀이** ① 'ㄱ-ㅋ'의 형태로 가획된다.

② 'ㄴ-ㄷ-ㄸ'의 형태로 가획된다. 'ㄸ'은 자음자 ㄷ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다.

③ 'ㅅ-ㅆ-ㅆ'의 형태로 가획된다.

⑤ 'ㅇ-ㆁ-ㆁ'의 형태로 가획된다.

9 기본자 'ㄷ'에 획을 하나 더하면 'ㅌ'이 되는 것을 통해 획을 더할 때 소리의 세기도 거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털썉'보다 '털썉'이 더 거센 느낌이 드는 말이다.

10 이체자인 'ㄹ, ㄷ, ㅇ'은 각각 기본자 'ㄴ, ㅅ,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다른 가획자와는 달리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ㄷ(반치음)'과 'ㅇ(엿이음)'은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ㄹ'은 사용하고 있다.

③ 'ㄹ, ㄷ, ㅇ'은 다른 가획자와는 달리, 기본자에 비해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은 없다.

④ 'ㄹ, ㄷ, ㅇ'은 기본자 'ㄴ, ㅅ,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므로 '상형의 원리'가 아니라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보충 자료

| 이체자 'ㄹ, ㄷ, ㅇ'의 특성 |

'ㄹ, ㄷ(반치음), ㅇ(엿이음)'은 '이체자'라고 부르며, 자음의 기본자인 'ㄴ, ㅅ, ㅇ'에 각각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형상으로는 가획한 것이므로 'ㄹ, ㄷ, ㅇ'을 가획자로 보는 것이 요즘 정설이다. 하지만 다른 가획자와는 달리 가획할수록 소리가 점점 세진다는 의미는 없다.

11 ㄱ과 ㄷ의 자음자들은 모두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지만, ㄴ의 자음자들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이다. ㄱ~ㄷ의 글자들을 만든 방법으로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한글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12 'ㅈ, ㅊ, ㅌ, ㅍ'는 초출자 'ㅈ, ㅊ, ㅌ, ㅍ'와 'ㅇ'을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오답 풀이**

- ①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② 하늘, 땅,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ㅇ, ㅡ, ㅣ'이다.
- ④ 모음자 'ㅣ'와 'ㅡ'에 'ㅇ'을 합성하여 만든 초출자는 'ㅈ, ㅊ, ㅌ, ㅍ'이다.
- ⑤ 재출자는 모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초출자에 'ㅇ'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13 'ㅇ'와 'ㅈ'를 더하면 'ㅊ'가 되고, 'ㅈ'와 'ㅊ'를 더하면 'ㅌ'가 된다. 'ㅇ, ㅡ, ㅌ, ㅍ, ㅊ'에 'ㅣ'를 더하면 'ㅊ, ㅌ, ㅍ, ㅊ, ㅌ'가 된다.

14 'ㅈ'와 'ㅇ'을 합성하면 재출자 'ㅌ'가 만들어진다.

15 모음의 기본자는 'ㅇ, ㅡ, ㅣ'이고, 기본자 'ㅡ'와 'ㅣ'에 'ㅇ'을 한 번 합성하여 만든 글자가 초출자 'ㅈ, ㅊ, ㅌ, ㅍ'이다. 이 초출자에 'ㅇ'을 한 번 더 합성하여 만든 글자가 재출자 'ㅌ, ㅍ, ㅊ, ㅌ'이다. 이와 같은 재출자가 모음으로 쓰인 글자는 '양말'이다.

16 모아쓰기는 한글 자모를 가로세로로 묶어 쓰는 표기 방식이다. 이는 읽기의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각의 음운이 소리를 내는 발음과는 상관이 없다.

17 <보기>에서 영어 알파벳 'a'가 세 가지로 소리 나는 것과 달리 한글 'ㅏ'는 하나의 소리를 내며, 문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18 왼손은 자음자를, 오른손은 모음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빠르다.

**오답 풀이**

- ① 자판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배열 방식은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운데 줄에 배치하였다.
- ② 자음자의 수는 14개, 모음자의 수는 10개이다.
- ④ 자판에서 초출자와 재출자를 다른 줄에 구분하여 배열하지는 않았다.
- ⑤ 자음자 중에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가획자를 옆에 배치하지는 않았다.

19 한글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높아 컴퓨터 자판을 누르면 별도의 변환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입력되므로 가나나 한자를 자판에 입력할 때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언어라는 장점이 있다.

20 <보기>의 활동은 한글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실천 방안은 블로그에 한글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영어로 소개하여 한글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21 'ㅈ'라는 재출자를 입력하기 위해 (가)에서는 'ㅣ'와 'ㅇ'과 'ㅇ'을 눌러야 하고, (나)에서는 'ㅈ'와 '획 추가' 자판을 누르면 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재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누르는 자판의 수는 같지 않다.

**보충 자료**

**| (가)와 (나) 휴대 전화 자판의 차이 |**

(가) 천지인 자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음 최소형 자판</li> <li>• 모음의 기본 글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됨.</li> </ul>
(나) 나랏글 자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 최소형 자판</li> <li>• 자음의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됨.</li> </ul>

22 한글은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0개 내외의 휴대 전화 자판 안에 배열된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많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에 비해 경제적이다.

23 '꽃병'에서 'ㅍ'은 '쌍자음' 자판을 눌러야 하고, '츠, 브, ㅈ'는 '획 추가' 자판을 눌러야 입력할 수 있다.

**문법 정리**

182쪽

- ① 가획자    ② ㅈ    ③ ㅌ    ④ 하늘    ⑤ ㅣ    ⑥ 모  
아쓰기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